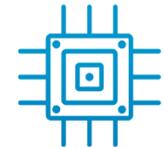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하반기 4가지 관전 포인트: 중국, 아이폰, 폴더블, DDR5

SK증권 이동주, 김영우, 안영진



- 중국은 수요,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인데 양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 2Q22 감소폭은 더욱 커질 듯. 다만 상반기의 이례적인 낮은 기저로 하반기 락다운 완화에 따른 회복 강도는 강할 것(호황보다는 정상화 관점)
- 중국 회복시 생산 차질 우려 해소와 중국 수요의 영향이 큰 Apple이 최대 수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고가의 Apple이 유리
- 삼성전자 폴더블은 공격적 가격 정책으로 판매량 증대 예상. 2022년 1,600만대 이상 출하 전망
-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3Q22 출시 예정으로 DDR5 본격 개화
- 삼성전기, LG이노텍, 아비코전자,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선호

● 중국의 정상화 / 양적&질적 성장의 아이폰 / 삼성전자 폴더블 4세대 / DDR5 개화

중국 주요 거점 도시 락다운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중국은 3억대 시장으로 수요 단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생산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에서도 거점. 락다운 조치가 수요와 공급에 동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 중국 출하량은 1Q22 YoY 14% 감소했고 2Q22 감소폭은 더욱 커질 듯. 다만 상반기의 이례적인 낮은 기저로 하반기 락다운 완화에 따른 회복 강도는 강할 것(호황보다는 정상화 관점). 부품 업체를 tracking한 바로는 아이폰14 9월 출시 일정에 큰 차질 없을 듯. 일부 모델 출시 연기설은 2주 내외 정도로 핸들링되고 있으며 폭스콘 정저우 공장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선제적 인력 충원을 통해 혹시 모를 락다운에도 대비. 오히려 관련 우려를 반영해 아이폰14 생산 계획을 여유있게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보다 가격 전가력이 있는 고가 제품이 유리. 아이폰14, 그 중에서도 상위 모델의 판매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아이폰11 45%→ 아이폰12 47% 아이폰13 52%). 삼성전자 4세대 폴더블 신제품 8월 출시 예상. Spec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출고가 판매의 중요한 변수(Z Flip 165만원 → Z Flip3 125만원). S 시리즈의 부진 만회를 위한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이에 따른 판매량 증대를 예상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시나리오 분석 결과

Base Scenario: 2022년 13억대(YoY -4%)

Bear: 2022년 12.7억대(YoY -7%)

Bull: 2022년 13.4억대(YoY -1%)

● 견고한 펀더멘탈 + 하반기 성장 재료가 유효한 업체 선별 전략

당사는 삼성전기(MLCC 하반기 반등), LG이노텍(Apple), 아비코전자(DDR5), 파인테크닉스(폴더블), KH바텍(폴더블)을 선호



Analyst
이동주
natelee@sksec.co.kr
02-3773-9026



Analyst
김영우
hermes_cmu@sksec.co.kr
02-3773-9244



Economist
안영진
Youngjin.an@sksec.co.kr
02-3773-8478

Version Revision

- Global Shipment:
1,368mn(OLD) vs 1,304mn(NEW) -5% revision
- By Region:
China 305mn(OLD) vs 290mn(NEW) -5% revision
C&E E. 72mn(OLD) vs 63mn(NEW) -14% revision
- By Vendor:
Xiaomi 191mn(OLD) vs 165mn(NEW) -14% revision

(mn unit)	2022		
	By Region	OLD	NEW
Asia	720	691	-4%
China	305	290	-5%
India	175	178	1%
Others	239	223	-7%
N.A.	144	142	-1%
L.A.	136	128	-6%
W.E.	134	135	1%
C&E E.	72	63	-14%
MEA	163	146	-10%
Global	1,368	1,304	-5%

자료: SK증권

(mn unit)	2022		
	By Vendor	OLD	NEW
Samsung	285	287	0%
Apple	251	245	-2%
Huawei	69	69	0%
Xiaomi	191	165	-14%
Oppo	135	123	-9%
Vivo	127	117	-8%
Others	310	299	-4%
Global	1,368	1,304	-5%

자료: SK증권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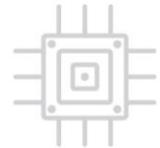
Chapter 1	경제 전망	5
Chapter 2	시나리오 분석, Summary	16
Chapter 3	제조사별 영향 분석	31
Chapter 4	지역별 영향 분석	49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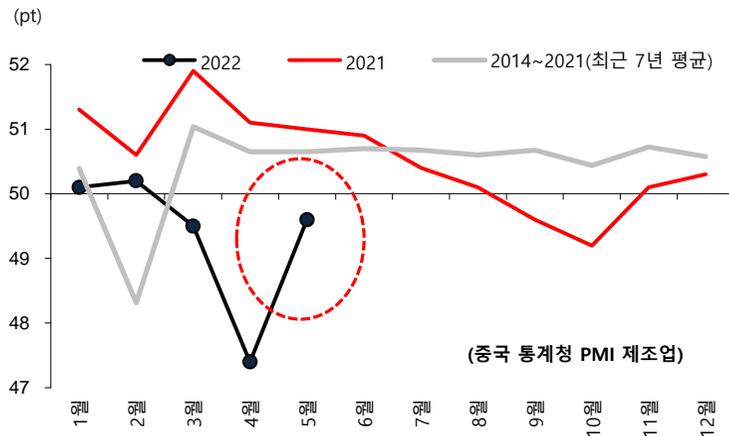
경제 전망



부양 패키지 → 최악의 매크로 국면을 지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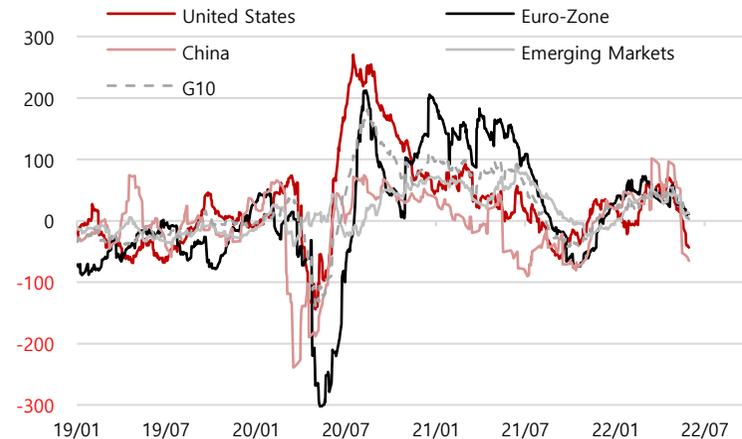
- 중국발 패키지: 1) 6월 1일 부로 봉쇄 조치 완화, 2) 세금 환급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승인, 3) 소비 진작 위한 할인 쿠폰 지급
 - 유럽과 함께 가장 부진한 수요 지역이었던 중국의 부양 패키지 발표
 - 최악의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5월 PMI 지수의 반등은 긍정적. 단, 수요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상반기 최악의 매크로(급격한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 전쟁, 중국 봉쇄 등)를 경험 → 심리 지표의 턴어라운드 조짐 관찰
 - 지역별 Citi Economic Surprise Index(ESI)는 바닥권
 - 약재의 피크 아웃은 금융시장 내 투자 심리에는 호재로 반영 되는 중

중국발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 → 최악의 국면을 지나는 것인가?



자료: 중국 통계청, SK증권

Economic Surprise Index는 경제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 → 현재 바닥권



자료: Refinitiv, SK증권

2년 만에 열린 다보스 포럼. 공통 화제는 ‘인플레’, ‘에너지’, ‘식량 위기’ 등

- 하반기 세계 경제를 보는 정책 당국/학계의 시각은 단연 ‘인플레이션’과 ‘전쟁’과 ‘에너지/식량 위기’에 초점이 맞춰 있음 - “부정적”

- 2022년 상반기의 화두는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였음
- 2022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식량 위기가 지속된다는 것이 보편적 전제가 됨을 의미
→ 전형적으로 공급 사이드가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
- 러시아 침공은 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붕괴로 여겨질 전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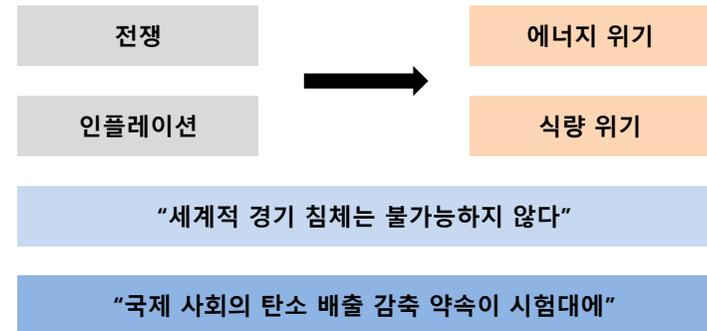
- 두 번째 Keyword는 ‘경기 침체’

- 수요 부진과 공급 부담 2가지 요인 모두에서 원인을 찾지만 ‘공급 요인 > 수요 요인’이라는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임
- ‘경기 침체’가 화두인 것은 침체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당장 경기 침체가 현실화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Base Scenario로 삼음

- 세 번째 Keyword는 ‘탄소 중립에 균열’

- 이미 전세계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에 공감
- 하지만 석유, 가스 가격 급등 속에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 대란
→ 석탄 등 다른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현실 vs. 이상)

2년 만에 열린 다보스 포럼의 핵심 키워드: 전쟁, 인플레이션, 에너지/식량 위기



자료: 다보스 포럼, SK증권

Everybody's Common View: 1) 물가 전망 상향, 2) 성장 전망 하향

● [대외 여건] 회복세 둔화

- 1Q 중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성장 둔화
- 하반기에도 중국 성장 둔화 지속,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따른 수요 위축
-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하향 조정(IMF)

● [교역 조건] 세계 교역 증가세는 약화될 전망

- 상품 교역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증가세 약화
- 서비스 교역은 경제 재개, 입국 제한 완화로 점차 개선

● [성장]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기존 3.0%에서 2.7%로, 내년 2.5%에서 2.4%로

- 소비(+): 거리두기 해제, 소득 여건 개선
- 설비투자/건설투자(-): 공급 차질 영향, 재료비/인건비 급증
- 수출(-): 대외 수입 수요, 전방산업의 자본재/중간재 수요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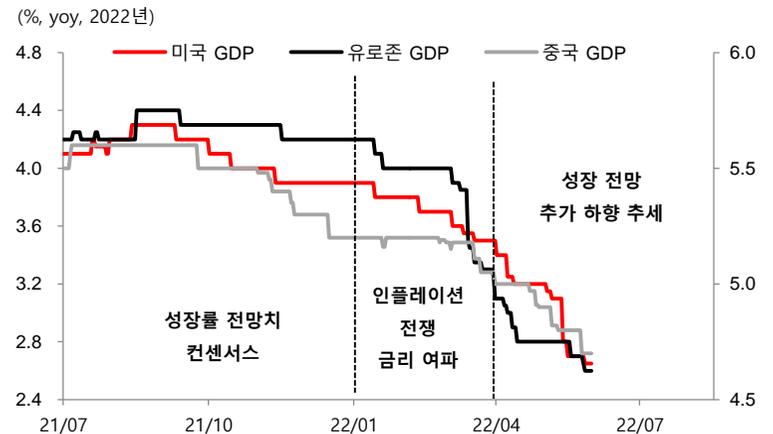
● [물가] 올해 한국의 물가 전망은 기존 3.1%에서 4.5%로, 내년 2.0%에서 2.9%로

-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 차질 심화 → 피크아웃 후에도 고공행진
- 원자재 수입물가 → 공업제품/가공제품 → 외식/서비스

최근 매크로 분석 및 전망의 단면: 경제 성장 전망 '대폭', '확연히' 하향

	2021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anuary 2022 WEO Update ¹	
		2022	2023	2022	2023
World Output	6.1	3.6	3.6	-0.8	-0.2
Advanced Economies	5.2	3.3	2.4	-0.6	-0.2
United States	5.7	3.7	2.3	-0.3	-0.3
Euro Area	5.3	2.8	2.3	-1.1	-0.2
Germany	2.8	2.1	2.7	-1.7	0.2
France	7.0	2.9	1.4	-0.6	-0.4
Italy	6.6	2.3	1.7	-1.5	-0.5
Spain	5.1	4.8	3.3	-1.0	-0.5
Japan	1.6	2.4	2.3	-0.9	0.5
United Kingdom	7.4	3.7	1.2	-1.0	-1.1
Canada	4.6	3.9	2.8	-0.2	0.0
Other Advanced Economies ²	5.0	3.1	3.0	-0.5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6.8	3.8	4.4	-1.0	-0.3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7.3	5.4	5.6	-0.5	-0.2
China	8.1	4.4	5.1	-0.4	-0.1
India ³	8.9	8.2	6.9	-0.8	-0.2
ASEAN-5 ⁴	3.4	5.3	5.9	-0.3	-0.1

1. 신흥국이 더 나빠
2. 유럽이 가장 나빠
3. 내년도 나빠



자료: IMF WEO(2022.4), SK증권

[핵심 키워드는 '국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

- 우리도 Common view에서 'Stagflationary'는 같은 생각
 -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지속, 경기의 눈높이는 더 낮춰야 함
 - 그 반작용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론, Fed의 속도조절론은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음

● 중요한 건 국면의 전환 여부: 2020 vs. 2021 v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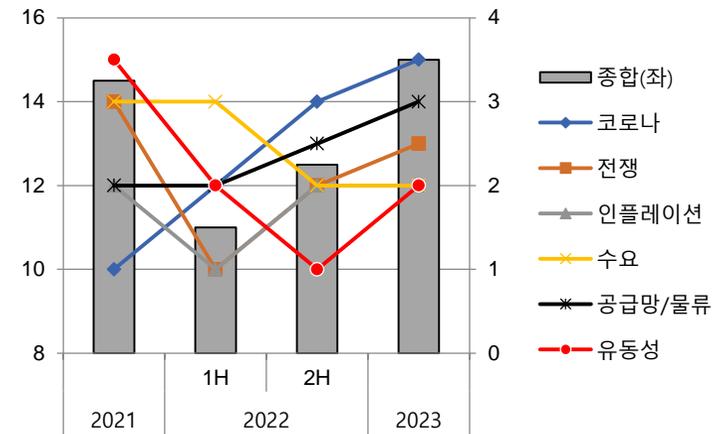
- 2020년과 2021년의 가장 큰 국면의 전환은 '역(逆)의 유동성 모멘텀'
- 2021년과 2022년의 가장 큰 국면의 전환은 '전쟁'. 더불어 '인플레이션'은 더 가중되었고, '긴축+금리'는 '역(逆)의 유동성 모멘텀'의 확장판

● 중요한 건 국면의 전환 여부: 1H22 vs. 2H22

- 1) 코로나, 2) 전쟁, 3) 인플레이션, 4) 수요, 5) 공급망/물류, 6) 유동성 등 6개의 Factor를 통해 국면을 판단
- 당사는 2H에 위 변수들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보다는 미세 조정의 구간이라 판단함
- 그 의미는 모든 악재와 함께 한다는 점은 1H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그 정도에서 차이를 유발한다는 점
- **산술적으로는 하반기에 악재의 스코어링이 개선되는 듯하지만 수요와 유동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Factor들이 더 나빠진다는 점에 주목**

주요 팩터별 국면 스코어링을 해보면 2H22는 산술적으로 1H22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만 수요와 유동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Factor	2021	2022		2023
		1H	2H	
코로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보통~좋음
전쟁	보통	매우 나쁨	나쁨	나쁨~보통
인플레이션	나쁨	매우 나쁨	나쁨	나쁨
수요	보통	보통	나쁨	나쁨
공급망/물류	나쁨	나쁨	나쁨~보통	보통
유동성	중음~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나쁨



자료: SK증권

[2가지 시나리오] V자형(Worst) 경로일지, U/L자형(Base) 경로일지



구분		Moderate			비고(근거 등)
		'22년 말	'23년 상반기	'23년 말	
시나리오 가정		- 매크로 환경은 어려우나 정책 대응으로 하방리스크 방어 - (원유) 수요 견조/공급난 지속	- Fed의 금리 인상 종료 - (원유) 수요 부진/공급난 일부 해소	- 경기 부진 재확인(침체) - (원유) 수요 부진/공급난 해소	- Base Scenario vs. Worst Scenario - 올해 하반기는 침체 현실화보다 (둔화+부양) 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금리	미국	2.75%	3.25%	3.25%	
	한국	2.25%	2.50%	2.50%	
환율	USD	1,230	1,200	1,270	
	EURO	1,316	1,320	1,334	
유가	Dubai	110	90	75	▷ 2023년 말까지 러시아발 공급난 해소될 것이라 가정 ▷ 유가 급등기 풀렸던 전략비축유 보충 수요로 인해 2023년까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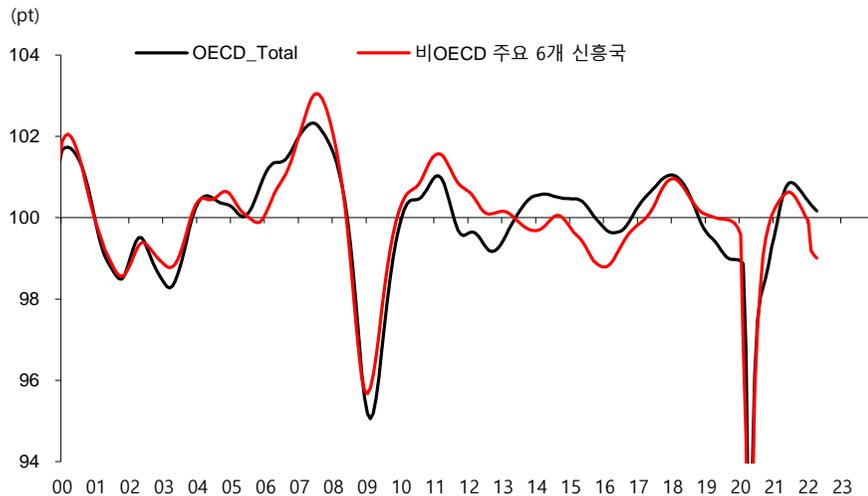
구분		Worst			비고(근거 등)
		'22년 말	'23년 상반기	'23년 말	
시나리오 가정		- 모든 약재 심화 - 경기 침체 - (원유) 수요 부진/공급난 지속	-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양 - (원유) 수요 회복/공급난 일부 해소	- 회복 타진 - (원유) 수요 회복/공급난 해소	- Base Scenario vs. Worst Scenario - 올해 하반기는 침체 현실화보다 (둔화+부양) 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금리	미국	3.25%	3.00%	2.75%	
	한국	2.50%	2.50%	2.25%	
환율	USD	1,350	1,250	1,200	
	EURO	1,391	1,313	1,320	
유가	Dubai	85	90	90	▷ 2023년 말까지 러시아발 공급난 해소될 것이라 가정 ▷ 유가 급등기 풀렸던 전략비축유 보충 수요로 인해 2023년까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하강” 국면인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순환 주기 상 턴어라운드 는 2023년 이후



- 2021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기 하강 국면 → 순환주기를 고려할 때 턴어라운드 가능 시기는 2023년 이후
 - 평균 40개월 가량으로 알려진 키친 사이클. 최근 주기는 짧아지고, 진폭은 작아졌다는 점도 고려
 - 경기 사이클 상의 위치는 Late Moderates(수축기)에서 Recession(침체기)로 가는 길목이라 판단
 - 흑여 리바운드가 발생한다면 선진국(DM, OECD)보다는 신흥국(EM, Non-OECD)에서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임
- Implication은 아직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을 예측할 때가 아니라는 점. 섹터도 에너지,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설명력 높음
 - 경기 사이클 상으로는 금융, IT/Tech(반도체), 경기민감소비재(자동차) 등은 비중을 높이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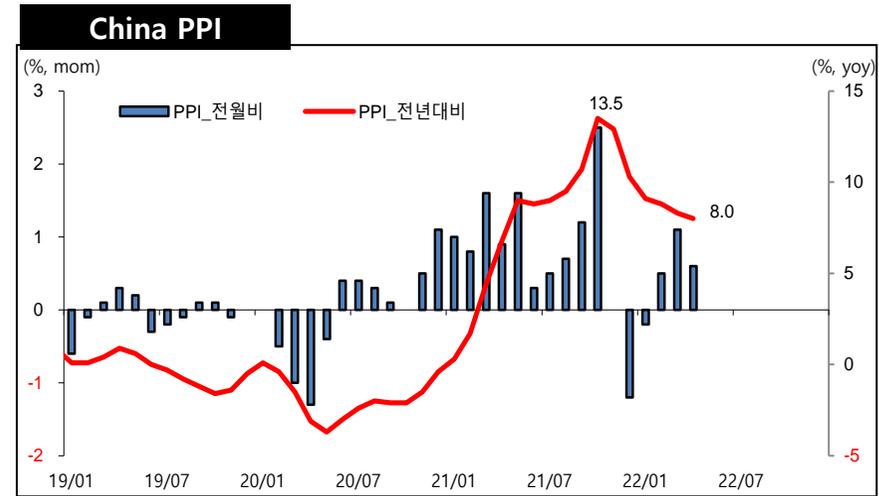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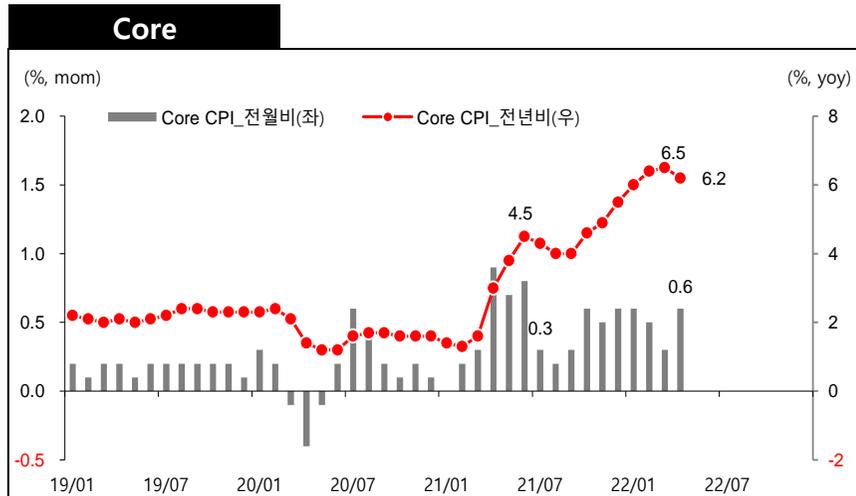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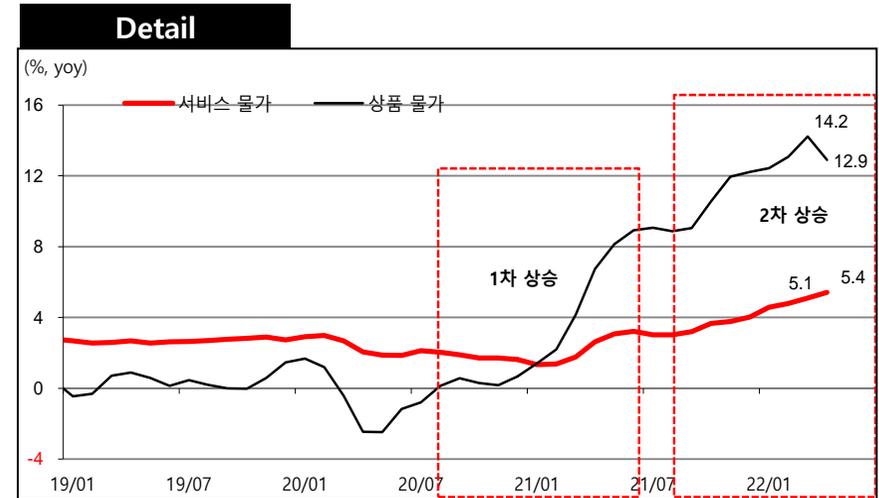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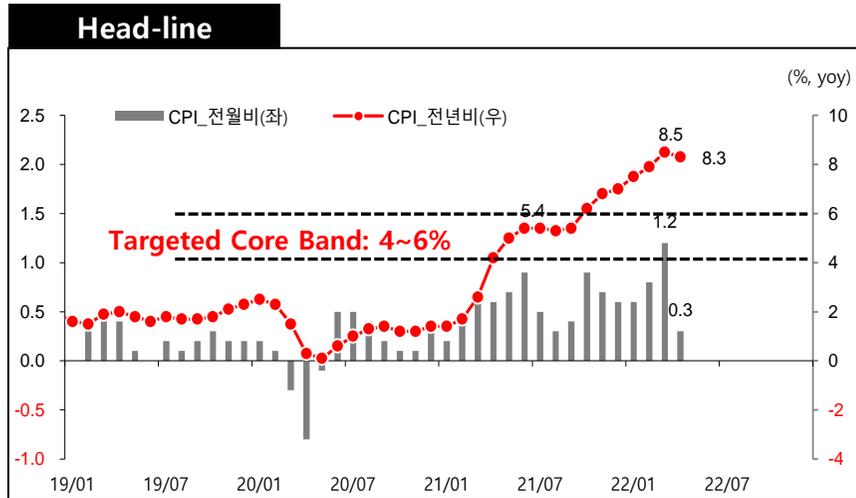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2021년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해 현재 진행형. 현재 Late moderates기에서 Recession contracts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



Sector	Early Rebounds	Mid Peaks	Late Moderates	Recession Contracts
Financials	+			
Real Estate	++			--
Consumer Discretionary	+	-	--	
Technology	+	+	--	--
Industrials	++			--
Materials	+	--	++	
Consumer Staples			++	++
Health Care	--		++	++
Energy	--		++	
Communication Services		+		-
Utilities	--	-	+	++

자료: OECD, Fidelity, SK증권

[#1. 인플레이션] Peak-out은 되지만..



[#1. 인플레이션] 쉽게 내려오지 않을 레벨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본격화 → 중앙은행들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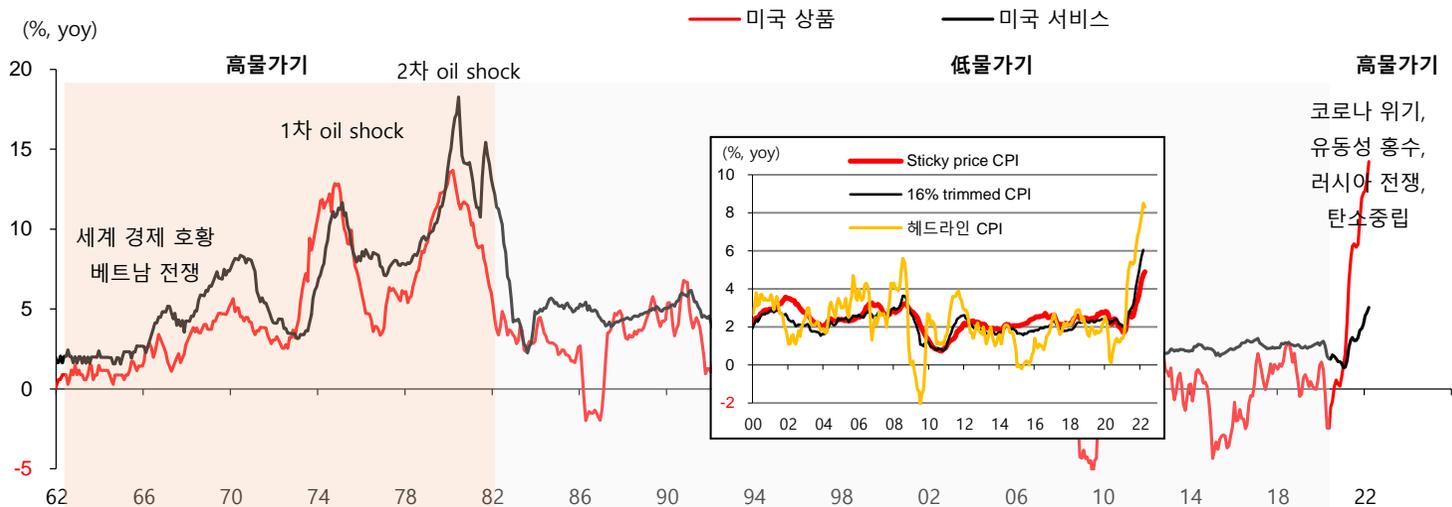
- 1) 역대급 유동성 홍수(통화 가치의 하락), 2) 공급망 교란, 3) 기후 위기 대응으로 탄소 중립 본격화 + 자원의 무기화 → 각종 비용 상승 효과
- 4) 구조적으로는 공급망(Global Value Chain)의 재편

- 물가 보조지표들(Sticky price, 16% trimmed price)의 후행성/안정성을 고려할 때, 고물가 환경 지속

- 이발 요금처럼 가격이 수시로 변하지 않는, 한번 정해지면 장기간 고정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재산출한 물가. 트렌드 확인에 유용

- 올해 하반기 5~6% 물가상승률(한국 4%대), 내년 연평균 3~4%대 전망

40년 만에 찾아온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 향후 수년 고물가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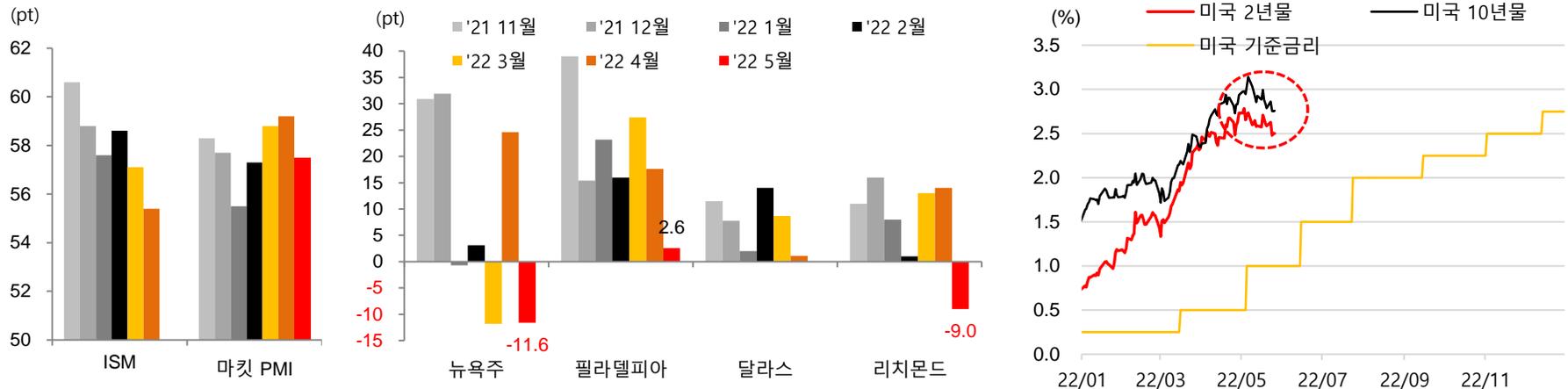


자료: Fred, SK증권

[#2. 금리] 이른 바 ‘Bostic pause’

- [Fed에서 드러난 작은 변화] 기존 Opinion Leader의 톤-다운과 신흥 Opinion Leader의 등장
 -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지금 금리 인상을 늦출 이유는 없지만, 중앙은행이 미래에 금리 인상분의 일부를 거둬들일 수 있다”
 - (New) Bostic 애틀란타 연은 총재, “50bp 인상을 찬성하면서도 9월에 잠시 멈추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 [경제지표, 전망에서 나타난 변화]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심리 지표 쇼크와도 맞물려 달러와 금리의 동반 반락.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물가(기존 3.1%→변경 4.5%)는 높이고, 성장(기존 3.0%→2.7%)은 낮춤
 - 물가는 여전히 각국 정책당국들의 제 1의 관리 대상.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 발언
 - 하지만 물가 대응은 기존에 알려진 현재진행형인 반면, 새로운 변화는 경기 우려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정책 운용의 딜레마가 될 것

미국의 5월 경제 지표(심리) 가운데 제조업/비제조업 체감 경기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 연준 스케줄 후퇴 여론과 함께 시장금리도 반락



자료: Refinitiv, Bloomberg, SK증권

[#2. 금리] 그래도 직진, 그러나 후퇴 → 기준금리 3.0% 내외에서 고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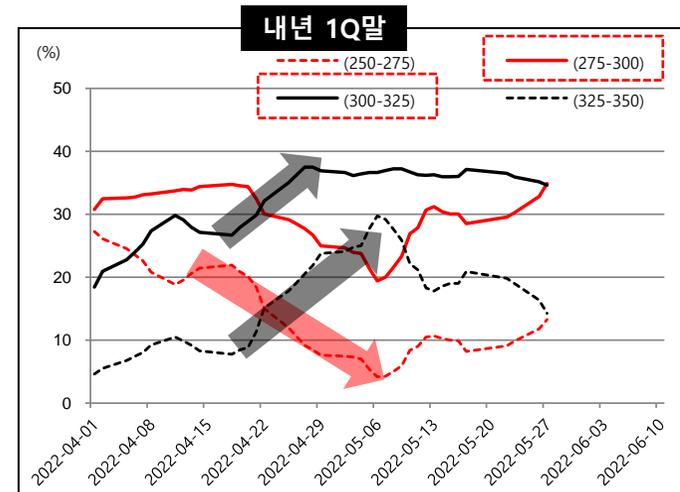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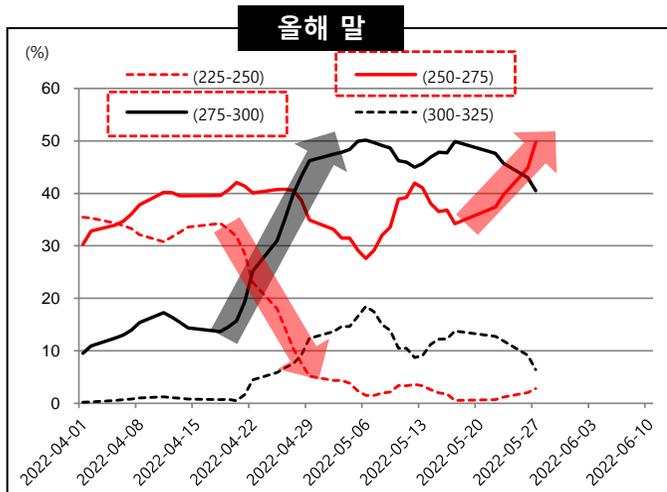
정태적
(Static)

향후 매 FOMC 회의별 금리 확률 분포

MEETING DATE	125-150	150-175	175-200	200-225	225-250	250-275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2022-06-15	96.8%	3.2%	0.0%	0.0%							
2022-07-27	0.0%	94.2%	5.7%	0.1%	0.0%	0.0%	0.0%	0.0%	0.0%		
2022-09-21	0.0%	0.0%	45.2%	51.7%	3.0%	0.0%	0.0%	0.0%	0.0%	0.0%	0.0%
2022-11-02	0.0%	0.0%	0.0%	44.5%	51.6%	3.8%	0.1%	0.0%	0.0%	0.0%	0.0%
2022-12-14	0.0%	0.0%	0.0%	0.0%	41.2%	51.1%	7.3%	0.4%	0.0%	0.0%	0.0%
2023-02-01	0.0%	0.0%	0.0%	0.0%	19.5%	45.9%	30.4%	4.0%	0.2%	0.0%	0.0%
2023-03-15	0.0%	0.0%	0.0%	0.0%	8.7%	31.3%	39.0%	18.6%	2.3%	0.1%	0.0%
2023-05-03	0.0%	0.0%	0.0%	0.0%	7.5%	28.0%	37.8%	21.6%	4.7%	0.4%	0.0%
2023-06-14	0.0%	0.0%	0.0%	0.0%	7.0%	26.7%	37.2%	22.6%	5.7%	0.7%	0.0%
2023-07-26	0.0%	0.0%	0.0%	0.0%	0.6%	8.7%	27.7%	36.0%	21.1%	5.3%	0.6%

주: 5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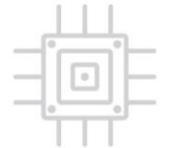
동태적
(Dynamic)



- Fed 금리 전망의 Dynamics에 주목
→ 인상은 계속되지만, 고점은 후퇴
 -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 “그런데 이젠 경기도 걱정이다”
- 경기 부담 완화 효과
→ 시장엔 긍정적, 경제엔 중립적

Chapter 2

시나리오 분석, Summary



2022년 13억대 YoY -4% 전망. 무너진 동유럽과 예상보다 길어진 중국 락다운

- 2022년 스마트폰 Sell-in 13억대(YoY -4%)로 전년(+5%) 대비 역성장 전망
- 4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동유럽(YoY -35%), 중국(YoY -7%)이 훨씬 더 부진
- 동유럽은 전쟁 발발로 러시아 (3,000만대)와 러시아 이외 동유럽(7,000만대)이 수요 영향권. 1Q22 29% YoY 감소했으며 2Q22에는 50% 이상 감소 추정. 하반기 중 전쟁 종결시에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무너진 공급망 체계, 인프라 타격 등으로 회복세도 상당히 더딜 것으로 판단. 하반기에도 큰 폭의 역성장 가정
- 3월부터 상하이와 주요 거점 도시 락다운 상황 지속. 기판 및 부품, OEM 생산 기지가 위치한 쿤산 공급망 타격 심각. 아이폰 및 OVX 스마트폰 supply chain의 생산 거점. 중국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불안정. 다만, 하반기 락다운 해제시 낮은 기저에 따른 회복 강도는 강할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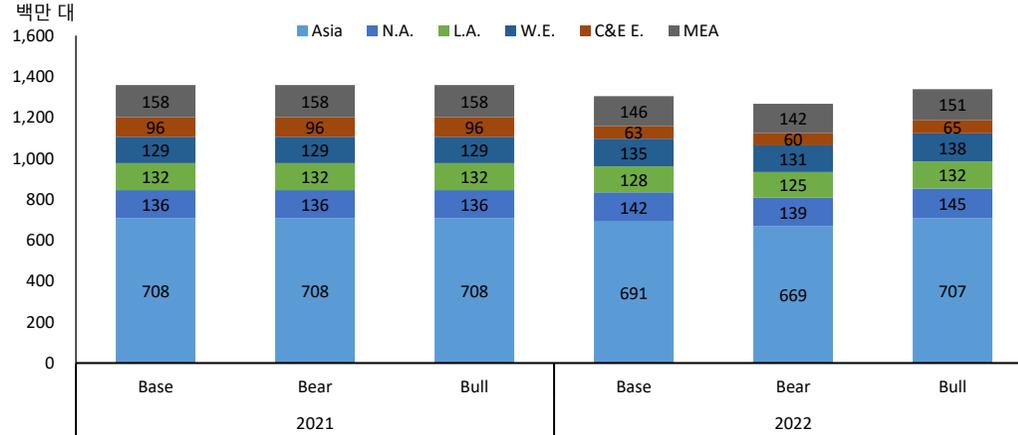
지역별 분기 및 연간 출하량 전망 비교

By Region	2021			2022			2021 YoY			2022 YoY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Asia	708	708	708	691	669	707	3%	3%	3%	-2%	-6%	0%
China	312	312	312	290	281	299	-2%	-2%	-2%	-7%	-10%	-4%
India	163	163	163	178	169	180	12%	12%	12%	9%	4%	11%
Others	233	233	233	223	218	228	5%	5%	5%	-4%	-6%	-2%
N.A.	136	136	136	142	139	145	5%	5%	5%	4%	2%	7%
L.A.	132	132	132	128	125	132	3%	3%	3%	-3%	-5%	0%
W.E.	129	129	129	135	131	138	6%	6%	6%	5%	2%	7%
C&E E.	96	96	96	63	60	65	-2%	-2%	-2%	-35%	-37%	-32%
MEA	158	158	158	146	142	151	15%	15%	15%	-8%	-10%	-5%
Global	1,358	1,358	1,358	1,304	1,266	1,338	5%	5%	5%	-4%	-7%	-1%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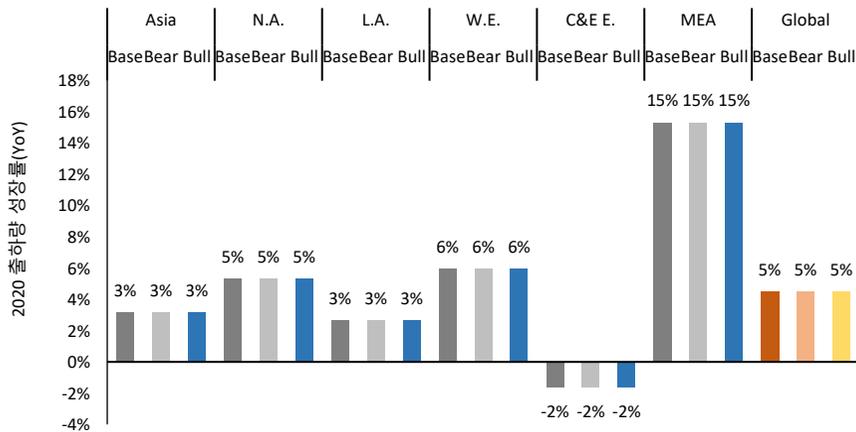
Key Charts by Scenario

시나리오별 지역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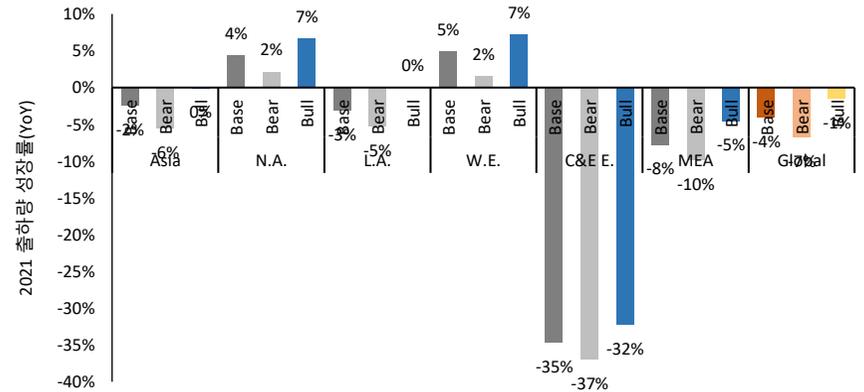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2021년 지역별 출하량 성장률



자료: SK증권

2022년 지역별 출하량 성장률



자료: SK증권

OVX 큰 폭의 출하 감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Apple과 삼성전자

- OVX의 올해 출하량은 9 ~ 13% 감소 추정. 중국 내 공급과 수요 타격에 따른 내수 시장 점유율 높은 업체 부정적 영향 불가피. 5G 스마트폰 재고도 높은 상황. 2Q22에도 OVX 모두 YoY 10% 이상의 출하 감소 이어질 전망. Apple 중국 내 판매 비중이 25%로 2Q22 수요 위축 및 생산 차질을 언급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양적 성장이 가능한 Apple과 삼성전자. 물론 상위 두 업체 모두 올해 출하량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크게 역성장하는 중화권 업체 대비 부각.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내 점유율이 1%에 불과하고 Apple은 2Q22가 통상적 비수기
- 질적 성장에서 갈리는 상위 두 업체. Apple은 700달러 이상 제품 비중이 70% 이상.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비중은 15% 내외. 비슷한 양적 성장 속에서도 고가 모델 판매 비중이 지속 늘어나는 Apple의 펀더멘탈이 우위.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중저가보다 고가 제품 판매가 유리(가격 전가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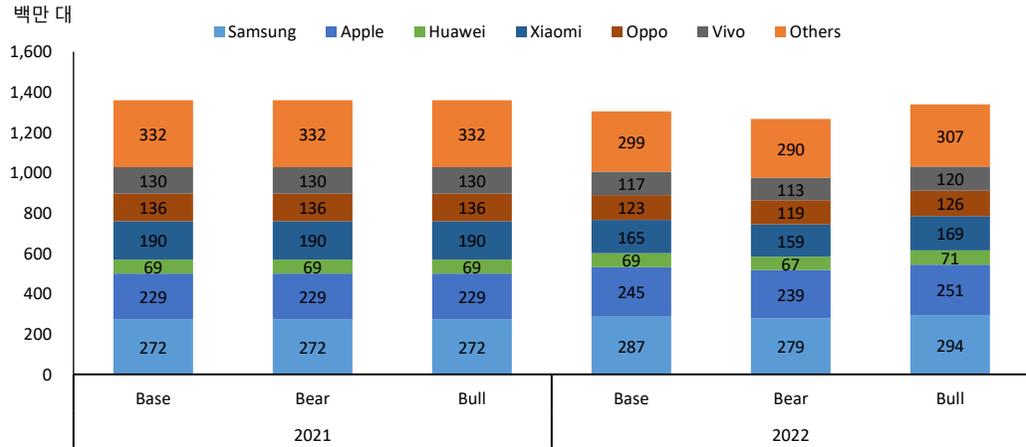
제조사별 분기 및 연간 출하량 전망 비교

By Vendor	2021			2022			2021 YoY			2022 YoY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Base	Bear	Bull
Samsung	272	272	272	287	279	294	7%	7%	7%	5%	3%	8%
Apple	229	229	229	245	239	251	11%	11%	11%	7%	4%	10%
Huawei	69	69	69	69	67	71	-63%	-63%	-63%	-1%	-4%	2%
Xiaomi	190	190	190	165	159	169	31%	31%	31%	-13%	-16%	-11%
Oppo	136	136	136	123	119	126	19%	19%	19%	-9%	-12%	-7%
Vivo	130	130	130	117	113	120	17%	17%	17%	-11%	-14%	-8%
Others	332	332	332	299	290	307	18%	18%	18%	-10%	-12%	-7%
Global	1,358	1,358	1,358	1,304	1,266	1,338	5%	5%	5%	-4%	-7%	-1%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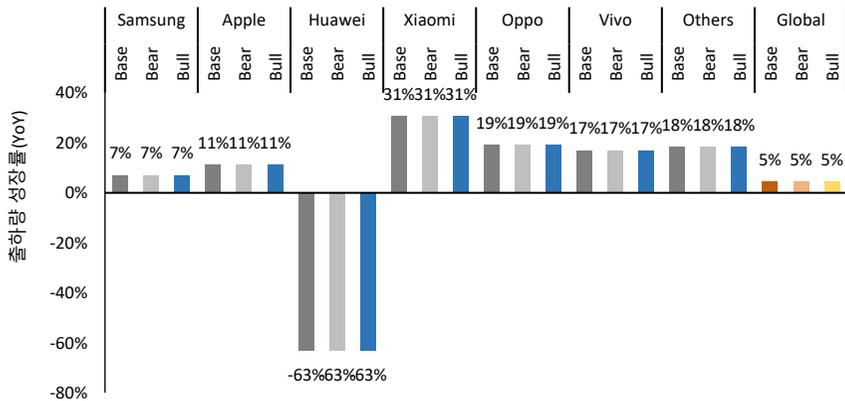
Key Charts by Scenario

시나리오별 제조사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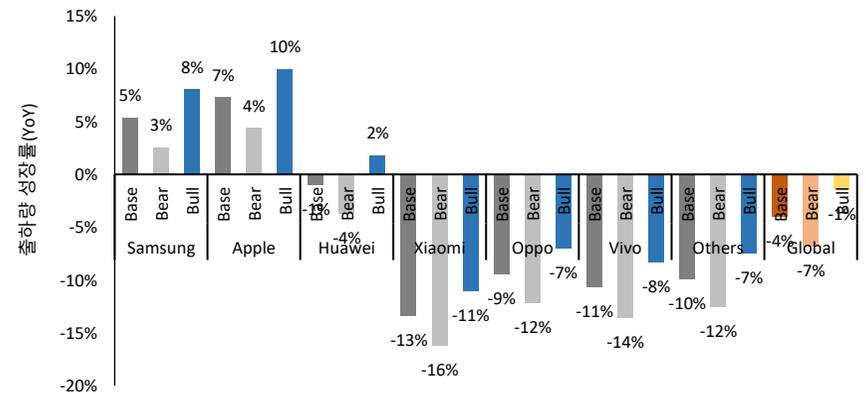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2021년 제조사 출하량 성장률 (YoY 기준)



자료: SK증권

2022년 제조사 출하량 성장률 (YoY 기준)



자료: SK증권

2Q22 최악을 지나가는 중. 중국 봉쇄령 완화 강도가 하반기 회복 속도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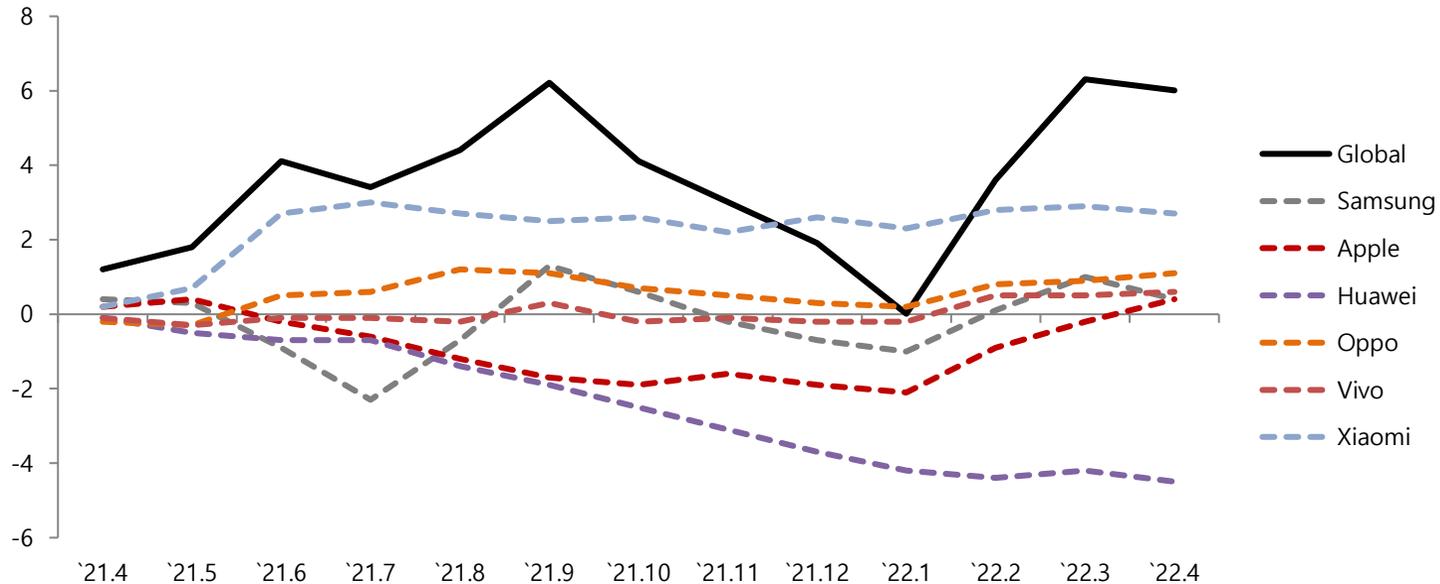
- 2Q2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대로 QoQ -5%, YoY -5% 전망
- 2Q22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면서 동유럽 지역 수요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동유럽 지역의 경우 전쟁 종결에도 회복 강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 스마트폰 업황 반전에 더욱 중요한 지역은 중국인데, 중국 역시 봉쇄령 조치가 길어지면서 2Q22까지 타격은 상당. 주요 부품 및 SET 생산 기지까지 위치한 터라 수요 뿐만 아니라 공급까지도 불안정한 상황 지속
- 6월부터 상하이를 중심으로 락다운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 상반기 기저가 워낙 낮았던 만큼 하반기 중국 회복 강도는 강할 것으로 전망. 재고 부담을 안고 있는 중화권 OVX보다 아이폰14 생산 이슈가 사라지는 Apple 모멘텀 우위

분기별 및 연간 출하량 전망 시나리오별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Total Shipment											
Base	352	314	327	365	314	299	330	361	1,413	1,358	1,304
Bear	352	314	327	365	314	286	320	347	1,413	1,358	1,266
Bull	352	314	327	365	314	311	340	373	1,413	1,358	1,338
<i>QoQ %</i>											
<i>Base</i>	-6%	-11%	4%	11%	-14%	-5%	10%	9%			
<i>Bear</i>	-6%	-11%	4%	11%	-14%	-9%	12%	8%			
<i>Bull</i>	-6%	-11%	4%	11%	-14%	-1%	9%	10%			
<i>YoY %</i>											
<i>Base</i>	28%	11%	-11%	-3%	-11%	-5%	1%	-1%	-1%	5%	-4%
<i>Bear</i>	28%	11%	-11%	-3%	-11%	-9%	-2%	-5%	-1%	5%	-7%
<i>Bull</i>	28%	11%	-11%	-3%	-11%	-1%	4%	2%	-1%	5%	-1%

자료: SK증권

'21.4 ~ '22.2 세트 누적 재고 추이



글로벌 스마트폰 누적 재고는 1월을 저점 이후 가파르게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주요 도시 락다운, 물류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출하 대비 판매에 큰 영향. 중화권 제조사의 5G 스마트폰 재고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에서도 Xiaomi 재고가 가장 높은 편. 2Q22에도 재고 조정 영향 지속

최근 스마트폰 업황은 공급과 수요가 무엇이 더 안좋은지 저울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지난해 하반기가 공급 이슈가 더욱 부각되었던 반면 올해 상반기는 수요 우려가 부각. 공급망 이슈는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요가 줄어든 여파가 크기 때문. Tech 업황 반전의 기본 전제는 탄탄한 수요. 하반기 중국 락다운 완화로 중국 수요는 상반기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이 예상되지만 호황보다는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SET 전반의 수요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삼성전자: GOS에 따른 이미지 타격, 폴더블로 반전 노릴 것

- 1분기 출하량은 7,450만대 YoY -3% 기록. 물량 밀어내기 효과로 예상보다 150만대 상회. A 시리즈 신제품 출시 효과와 S22 GOS 이슈에도 프로모션 정책 강화로 이슈에 따른 출하량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
- 3월부터 중국 주요 도시 강한 락다운 정책 지속.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해 영향은 거의 없음. 핵심 부품 관련 쇼티지도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
- 하지만 삼성전자의 중국 ODM Supply chain 쪽 생산 차질과 중국 이외 불안정한 동유럽 시장,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5월부터 감산에 무게(일부 부품사 오더컷 소식)
- 플래그십에서 약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폴더블로 make-up하고자 노력. 폴더블 4세대 사양 변화는 적지만 공격적 가격 정책 예상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shipment(mn unit)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E	3Q22E	4Q22E
Samsung	77	57	69	69	75	66	72	74
Apple	57	46	46	80	57	47	57	84
Huawei(Honor 포함)	17	13	20	20	20	14	17	18
Xiaomi	49	53	44	45	39	37	42	47
Oppo	38	33	34	31	27	30	33	34
Vivo	37	32	34	28	26	27	31	32
Others	78	81	81	91	70	79	78	72
Global	352	314	327	365	314	299	330	361

shipment	2019	2020	2021	2022E	YoY
Samsung	295	254	272	287	5%
Apple	197	206	229	245	7%
Huawei(Honor 포함)	241	188	69	69	-1%
Xiaomi	125	146	190	165	-13%
Oppo	115	114	136	123	-9%
Vivo	107	112	130	117	-11%
Others	333	280	332	299	-10%
Global	1,413	1,300	1,358	1,304	-4%

자료 : SA, SK증권

Apple: 하반기에도 아이폰이 주인공

- 1분기 출하량은 5,700만대 YoY Flat 기록. 전작 제품의 출시 연기에 따른 높은 기저를 고려하면 상당한 흥행
- 특히 아이폰 상위 모델의 판매 호조가 두드러짐. 2Q22에는 1,000만대 가량 증산. 아이폰 시리즈별 상위 모델의 판매 비중은 지속 높아지고 있으며 아이폰13의 상위 모델 판매 비중은 절반 이상. 인플레이션 아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얼어 붙는다는 점은 소비 재에 부정적이지만 중저가 대비 고가 모델의 판매가 유리(가격 전가력 때문)
- 아이폰14의 흥행을 예상하는데 1) 중국 시장 내 대체 불가(600달러 이상) 2) 폼팩터 변화(편치홀 디자인, 카메라 스펙 상향) 3) 경쟁사 대비 부각되는 성능. 최근 중국 락다운 장기화로 아이폰14 출시 일정에도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2주 차이 정도에 불과.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정저우 공장 생산 차질만 없다면 출시는 on the track 예상

Apple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shipment(mn unit)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E	3Q22E	4Q22E
Samsung	77	57	69	69	75	66	72	74
Apple	57	46	46	80	57	47	57	84
Huawei(Honor 포함)	17	13	20	20	20	14	17	18
Xiaomi	49	53	44	45	39	37	42	47
Oppo	38	33	34	31	27	30	33	34
Vivo	37	32	34	28	26	27	31	32
Others	78	81	81	91	70	79	78	72
Global	352	314	327	365	314	299	330	361

shipment	2019	2020	2021	2022E	YoY
Samsung	295	254	272	287	5%
Apple	197	206	229	245	7%
Huawei(Honor 포함)	241	188	69	69	-1%
Xiaomi	125	146	190	165	-13%
Oppo	115	114	136	123	-9%
Vivo	107	112	130	117	-11%
Others	333	280	332	299	-10%
Global	1,413	1,300	1,358	1,304	-4%

자료 : SA, SK증권

중화권 제조사: 악재에 또 악재

- 중국 주요 도시 락다운 장기화로 중국 내 점유율이 높은 OVX 타격 심각. 생산 차질 뿐만 아니라 급격한 수요 위축을 경험 중
- 3사 모두 연간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 Xiaomi는 연초 2억대 달성까지 자신했으나 중국, 동유럽 출하량 급감으로 달성 불투명. 당사에는 1.6~1.7억대 사이를 전망. Vivo와 Oppo도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 예상
- 5G 스마트폰 재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 락다운 완화 이후 하반기 출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는 이유
-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고가 제품보다 중저가 제품 판매가 불리. 가격 이점이 주요 마케팅 포인트인 중저가의 경우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은 큰 부담. 중저가 제품 위주의 MS 확대 전략을 가지는 중화권 제조사에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중화권 제조사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shipment(mn unit)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E	3Q22E	4Q22E
Samsung	77	57	69	69	75	66	72	74
Apple	57	46	46	80	57	47	57	84
Huawei(Honor 포함)	17	13	20	20	20	14	17	18
Xiaomi	49	53	44	45	39	37	42	47
Oppo	38	33	34	31	27	30	33	34
Vivo	37	32	34	28	26	27	31	32
Others	78	81	81	91	70	79	78	72
Global	352	314	327	365	314	299	330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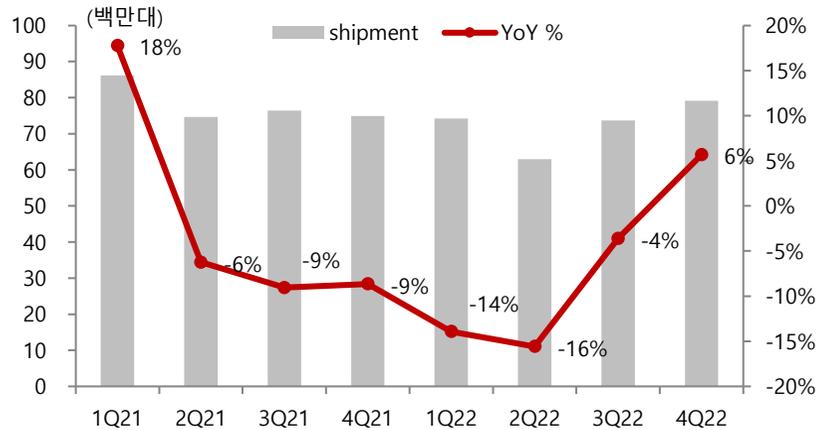
shipment	2019	2020	2021	2022E	YoY
Samsung	295	254	272	287	5%
Apple	197	206	229	245	7%
Huawei(Honor 포함)	241	188	69	69	-1%
Xiaomi	125	146	190	165	-13%
Oppo	115	114	136	123	-9%
Vivo	107	112	130	117	-11%
Others	333	280	332	299	-10%
Global	1,413	1,300	1,358	1,304	-4%

자료 : SA, SK증권

수요와 공급이 모두 무너진 중국. 골(상반기)이 깊은 만큼 산(하반기)은 높다

- 중국은 전세계 스마트폰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처. 생산 비중으로는 탈중국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전세계 60% 가량 차지. 여기에 수출되는 중국산 부품까지 고려하면 그 비중은 80% 내외 추정
-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이 수요와 공급 모두 흔들리는 상태. 3월부터 시작된 주요 도시 락다운이 5월말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중. 상하이 인근에는 주요 세트 및 부품 생산의 거점 지역으로 봉쇄령 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상황. 반도체 부품 부족에 이어 생산 단에서의 일부 bottleneck 발생
- 1Q22에 이어 2Q22에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상당한 침체 예상. 다만 상반기 이례적으로 낮은 기저 덕분에 하반기의 회복 강도는 강할 것으로 전망. 6월부터는 봉쇄령 완화 조치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생산 정상화와 함께 중국 정부 내수 부양 의지에 따른 가파른 수요 회복도 기대

중국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자료 : SK증권

상하이 인근 주요 거점별 세트&부품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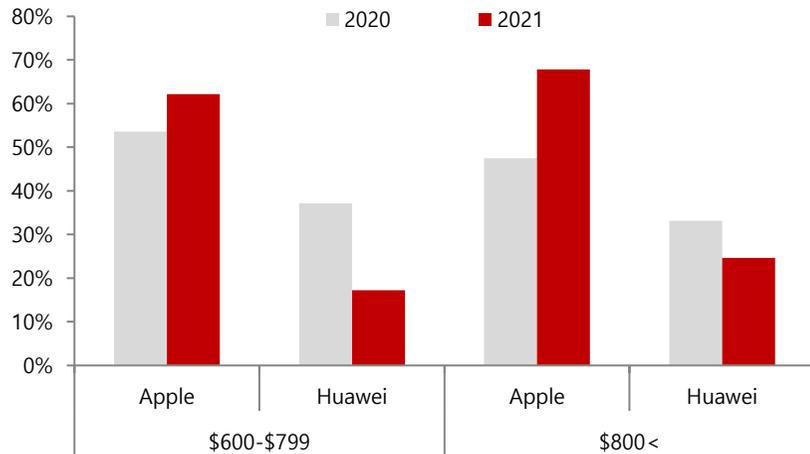


자료 : SK증권

하반기에도 아이폰이 주인공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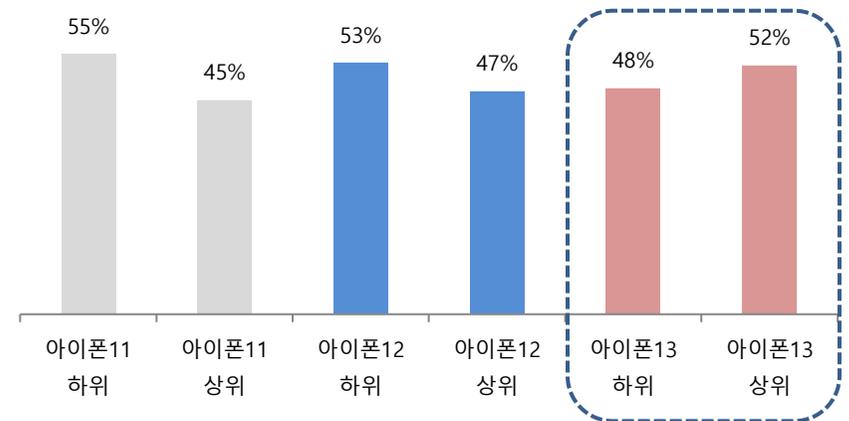
- 1) 중국 내 고가 스마트폰 시장 비중은 600-799달러 10%, 800달러 이상 11%. 고가 시장에서는 Huawei와 Apple이 양분하는 구도였지만 Huawei 지배력 약화로 Apple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굳어가는 추세. 2021년 600-799달러대 Apple 점유율 54% → 62%, 800달러 이상 47% → 68%로 각각 상승. 2022년에도 상승세 지속 전망. 중국 수요 침체에도 아이폰 수요는 최소 유지 추정
- 2) 아이폰 상위 모델의 판매 호조. 아이폰13의 상위 모델 판매 비중은 절반 이상. 특히 인플레이션 아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얼어 붙는다는 점은 소비재에 부정적이지만 중저가 대비 고가 모델의 판매가 유리. 중저가의 가성비 전략은 퇴색되는 반면, 고가 모델은 가격 전가에도 둔감한 편
- 3) 글로벌 경쟁사 GOS 논란 이후 아이폰의 칩 성능 상대적으로 부각. Android → iOS로 전환 수요 존재
- 4) 아이폰14 최상위 제품의 EVT(엔지니어링 검증 테스트)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있으나 2주 정도 차이. 반면, 생산 단에서는 5월부터 선제적 인력 확충으로 생산 차질 리스크 최소화. 신제품 로드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중국 고가(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



자료 : SK증권

아이폰 시리즈 Segment별 출하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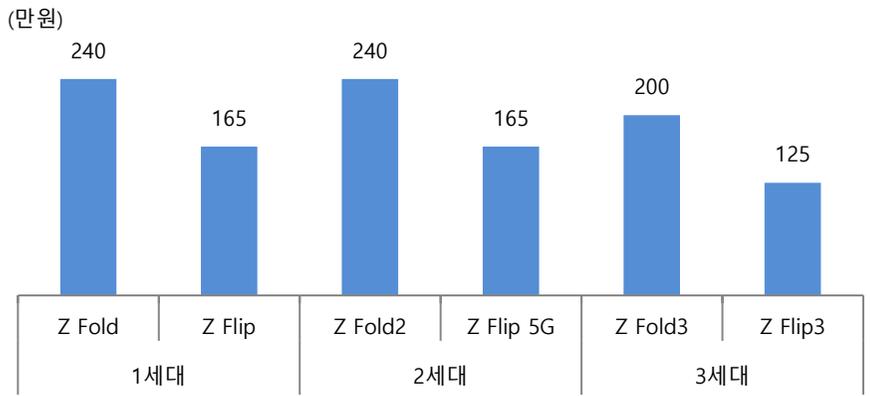


자료 : SA, SK증권

‘폴더블폰’, 얼마나 더 저렴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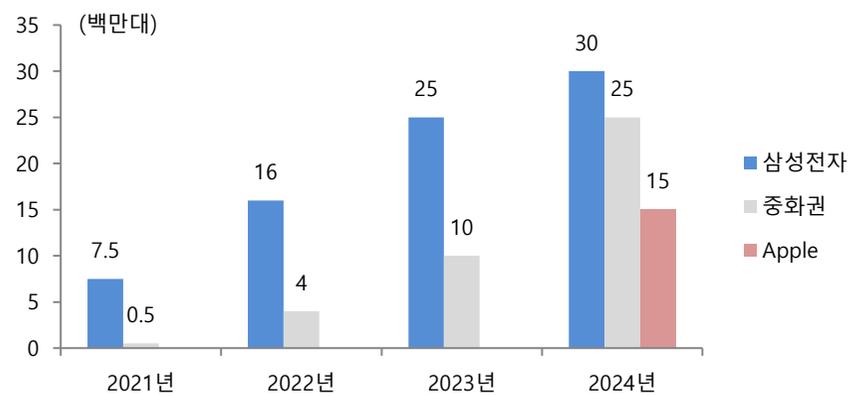
- 폴더블폰 출하량은 2021년 800만대에서 2022년 2,000만대 시장으로 2배 이상 성장 전망
-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 2,000만대 중 삼성전자 1,600만대, 중화권 400만대 추정. Apple의 폴더블폰 진입 시점은 2024년이 예상되며 Tablet과 Smartphone 투트랙 전략. 화면이 클수록 접을 때 효율이 커지는 Tablet에 오히려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4세대 폴더블폰은 8월 출시 전망(부품 생산은 6월). 전작과 비슷한 출시 일정. 올해 신제품의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고 무게와 두께를 줄이는 데에 초점. 무게와 두께의 변화 수준이 크지 않다면 결국 판매량의 변수는 출고가
- Fold와 Flip 모두 지난해 가격 크게 인하. 전체 판매량의 70%를 차지하는 Flip의 가격 정책이 중요. 100만원(전작 125만원) 내외 출고시 폴더블 출하량 눈높이 상향 여지 충분
-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품 Spec을 올리면서 출고가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 부품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가격 이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폴더블 관련 업체로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디케이티 주목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고가 추이



자료: 삼성전자, SK증권

제조사별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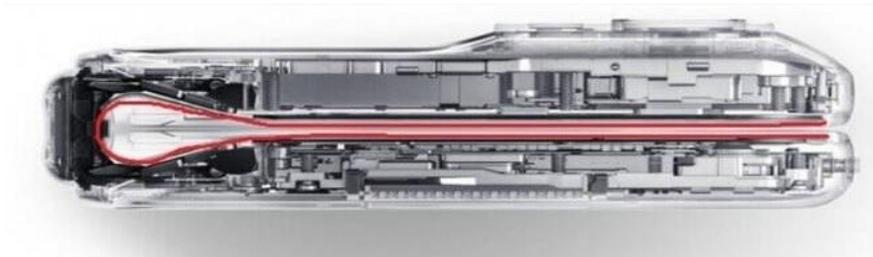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힌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시인성과 내구성 사이

- 2021년 12월 출시된 Oppo의 폴더블 Find N 제품의 Spec은 기대 이상. 특히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적
- Find N은 물방울 힌지를 채택. 곡률 반경을 키우는 대신 힌지 좌우에 일정 힘을 가하는 방식의 설계로 패널 중앙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완화. 주름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시인성 개선
- 삼성전자 폴더블의 경우 U자형에 가까운 힌지 채택. 곡률 반경을 최대한 줄여 패널 사이 이격을 좁히는 데에 집중. 주름은 다소 눈에 떨 수 있으나 방수방진과 S펜 적용에 상대적 이점
- 두 힌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음. 물방울 힌지는 시인성은 뛰어나지만 내구성과 높은 힌지 가격(100달러 추정)이 문제, 곡률 반경을 줄인 U자형 힌지는 내구성과 가격에 이점은 있으나 시인성(주름) 개선이 필요
- 결국 폴더블 성패에 힌지가 중요한 역할. 힌지의 부가가치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 예상

Oppo Find N 물방울 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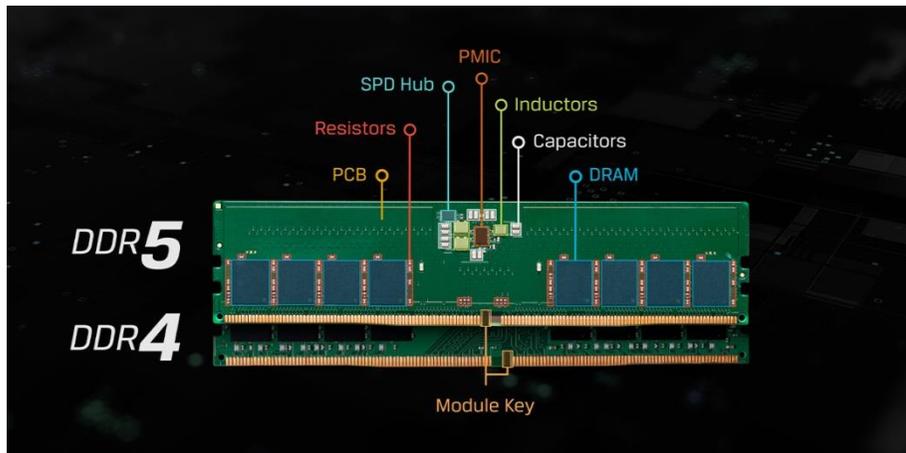
삼성 갤럭시 Z 폴드2 U자형 힌지



DDR5 시대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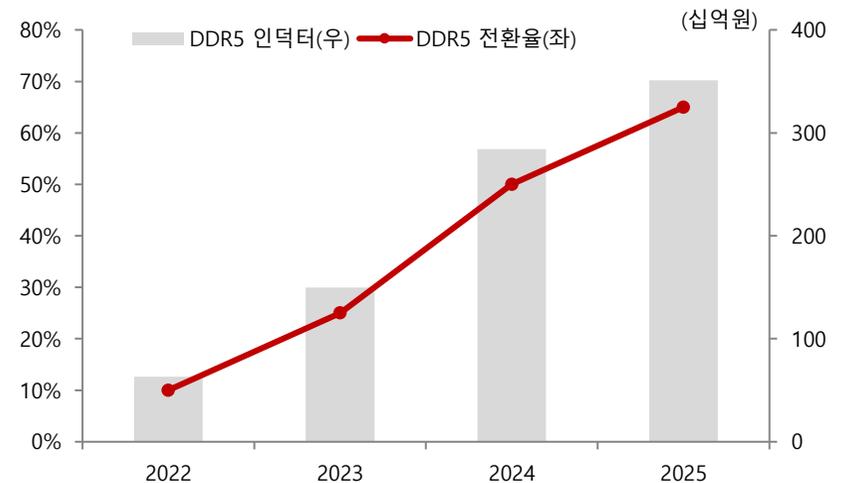
- 3Q22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정식 출시 예정. DDR5를 지원하는 첫 서버용 CPU. DDR5는 DDR4 대비 2배 개선된 성능
- DDR5에서는 전력 관리가 모듈 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PMIC가 새롭게 탑재. 전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수동 소자 필수적. 기존 메모리 모듈에서는 저항기(대당 40-80개)만 채용됐지만 DDR5에서는 인덕터와 커패시터 신규 탑재. 인덕터의 경우 대당 3-4개 채용이 예상
- 2023년 DDR5 25% 전환율을 가정한 DDR5용 인덕터 시장 규모는 1,500억원. 채용되는 인덕터의 경우 메탈타입의 인덕터로 기존 대비 ASP 크게 상회
- DDR5 관련 업체로 아비코전자(수동소자) 선호, 티엘비(Module PCB) 관심

DDR5 메모리 모듈



자료 : King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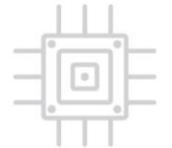
DDR5 인덕터 시장 전망



자료 : SK증권

Chapter 3

제조사별 영향 분석



삼성전자: 5월부터 재고 조정, 하반기 완만한 회복

- 2021년 출하량: 2.7억대 YoY +7% 기록
- 2022년 출하량: 2.8 ~ 2.9억대 YoY +3 ~ +8% band 추정
- 삼성전자의 중국 ODM Supply chain 쪽 생산 차질과 중국 이외 불안정한 동유럽 시장,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영향
- GOS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폴더블에 사활. 올해 삼성 폴더블 기대 출하량은 1,400만대이지만 4세대 제품의 가격이 공격적으로 책정된다면 1,600만대 이상 가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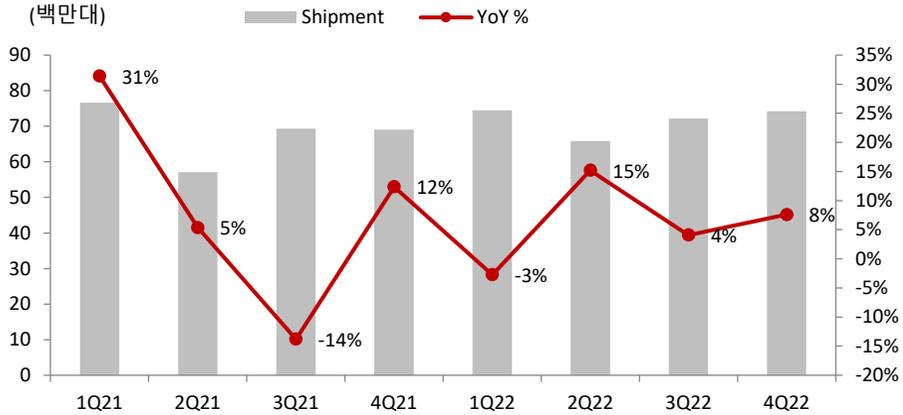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77	57	69	69	75	66	72	74		254	272	287
	Bear	77	57	69	69	75	64	70	71		254	272	279
	Bull	77	57	69	69	75	68	74	77		254	272	294
YoY %													
	Base	31%	5%	-14%	12%	-3%	15%	4%	8%		-14%	7%	5%
	Bear	31%	5%	-14%	12%	-3%	11%	1%	3%		-14%	7%	3%
	Bull	31%	5%	-14%	12%	-3%	19%	7%	12%		-14%	7%	8%
M/S % in Base													
	Asia	29%	27%	29%	28%	30%	38%	35%	34%		27%	29%	34%
	China	1%	1%	1%	1%	1%	1%	1%	1%		1%	1%	1%
	India	10%	10%	12%	11%	9%	15%	14%	14%		13%	11%	13%
	Others	18%	16%	16%	15%	19%	23%	20%	19%		13%	16%	20%
	N.A.	13%	16%	17%	15%	15%	13%	17%	13%		14%	15%	15%
	L.A.	18%	20%	16%	17%	18%	18%	16%	17%		20%	18%	17%
	W.E.	15%	12%	13%	15%	14%	11%	12%	14%		15%	14%	13%
	C&E E.	11%	9%	10%	11%	8%	5%	7%	7%		12%	10%	7%
	MEA	14%	15%	14%	14%	15%	14%	13%	15%		14%	14%	14%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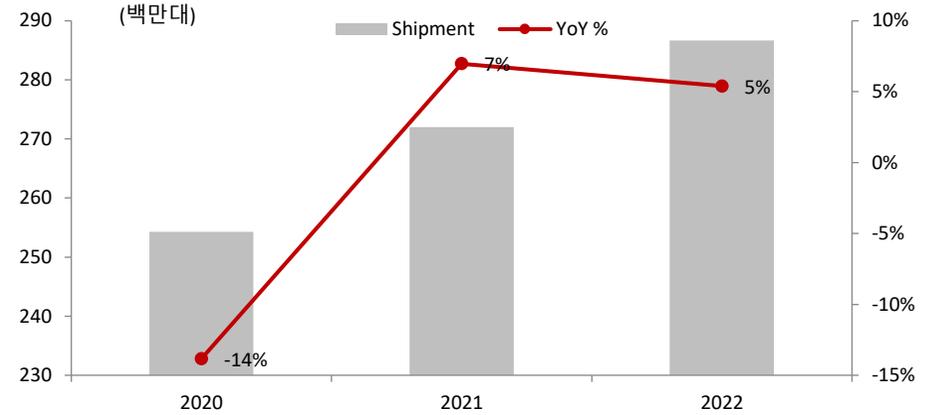
Samsung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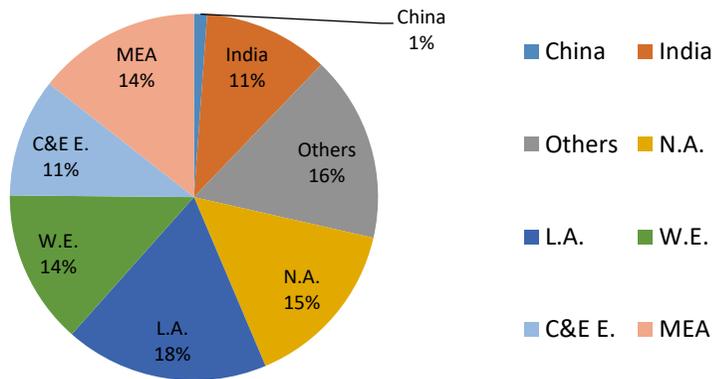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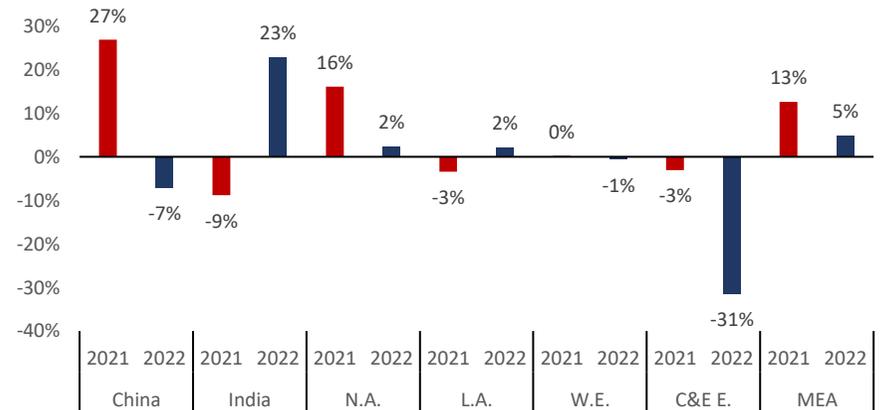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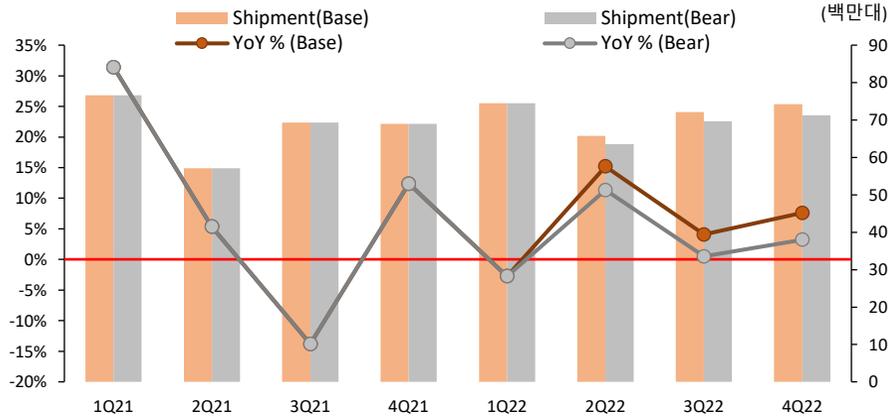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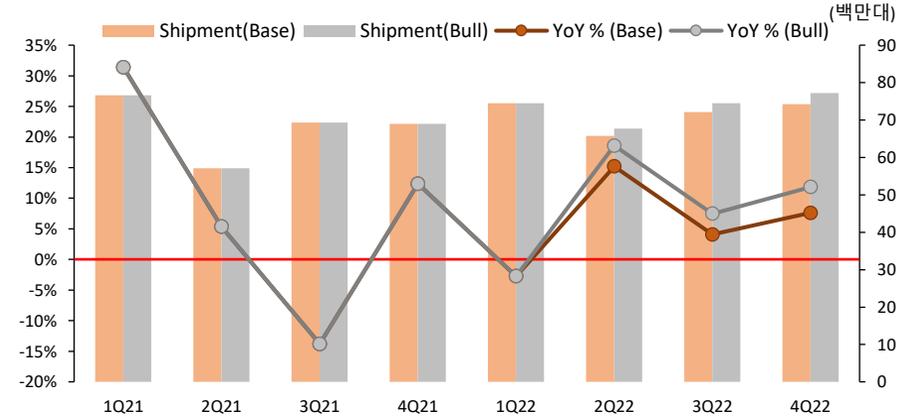
Samsung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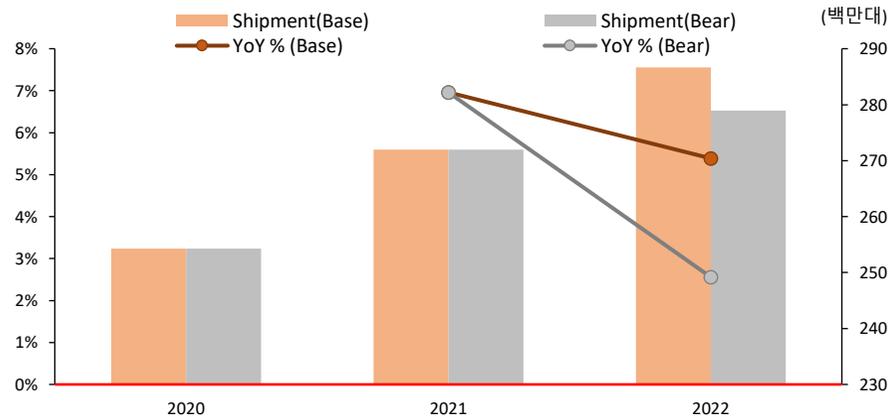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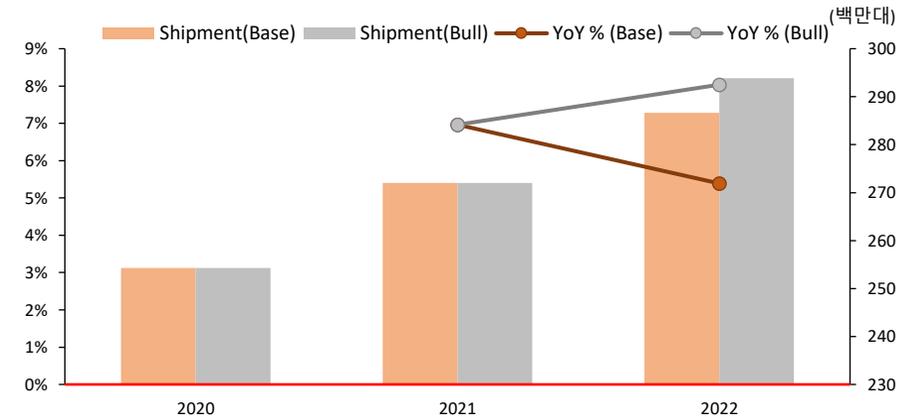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Apple: 노이즈가 많을 수 밖에 없는 2Q22, 아이폰14 출시가 이를 잠재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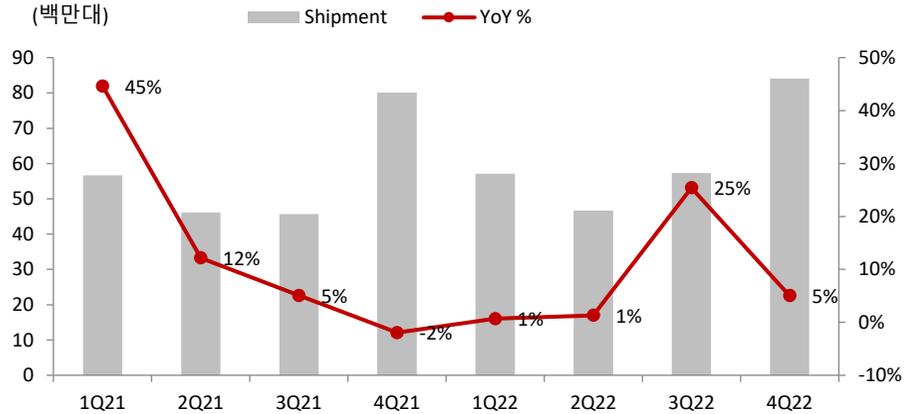
- 2021년 출하량: 2.3억대 YoY +11% 기록
- 2022년 출하량: 2.4 ~ 2.5억대 YoY +4 ~ +10% band 추정
- 중국 주요 도시 락다운이 장기화되면서 Pegatron, Unimicron, Compal 등 주요 Apple Supply chain 생산 차질 발생. Apple 역시 이로 인해 2Q22 매출 단에 10% 가량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하반기 생산 계획에 관해서도 논란 여전
- 아이폰14 생산 차질 리스크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는 중. 아이폰14 흥행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판단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57	46	46	80	57	47	57	84		206	229	245
	Bear	57	46	46	80	57	45	56	81		206	229	239
	Bull	57	46	46	80	57	48	59	87		206	229	251
YoY %													
	Base	45%	12%	5%	-2%	1%	1%	25%	5%		4%	11%	7%
	Bear	45%	12%	5%	-2%	1%	-2%	22%	1%		4%	11%	4%
	Bull	45%	12%	5%	-2%	1%	5%	29%	9%		4%	11%	10%
M/S % in Base													
	Asia	42%	43%	45%	41%	39%	44%	45%	40%		40%	43%	42%
	China	22%	20%	20%	22%	23%	18%	22%	21%		17%	21%	21%
	India	2%	1%	3%	3%	3%	4%	5%	4%		1%	2%	4%
	Others	18%	22%	21%	17%	13%	22%	19%	15%		22%	19%	17%
	N.A.	24%	24%	25%	25%	26%	24%	24%	26%		25%	25%	25%
	L.A.	6%	7%	6%	5%	7%	6%	5%	5%		8%	6%	6%
	W.E.	18%	17%	17%	20%	19%	16%	17%	21%		18%	18%	19%
	C&E E.	5%	4%	3%	3%	4%	2%	2%	3%		4%	4%	3%
	MEA	5%	5%	4%	4%	5%	8%	7%	5%		5%	5%	6%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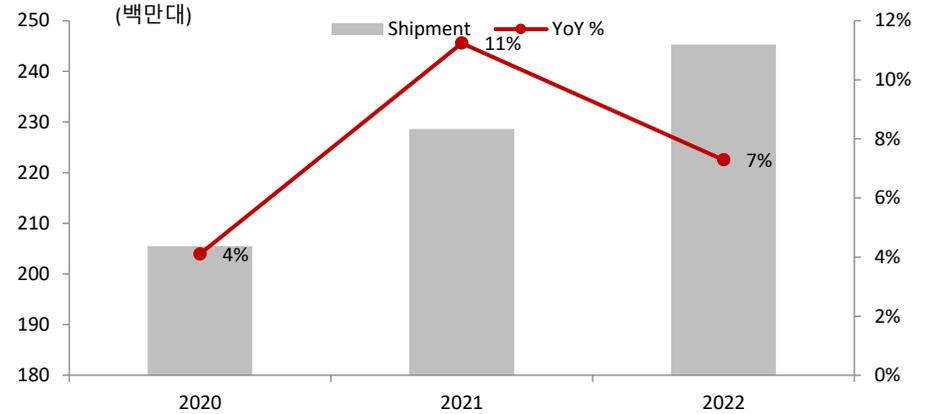
Apple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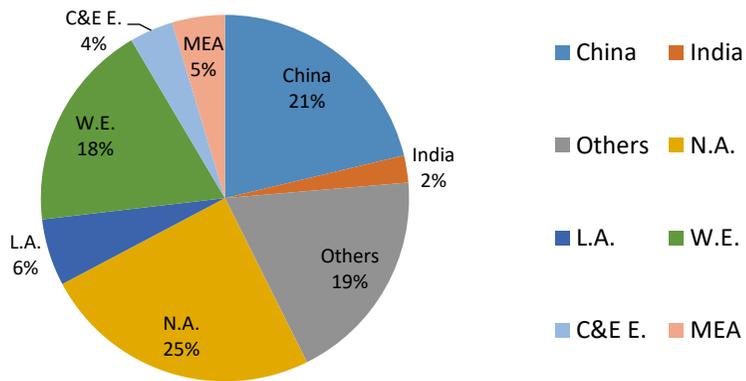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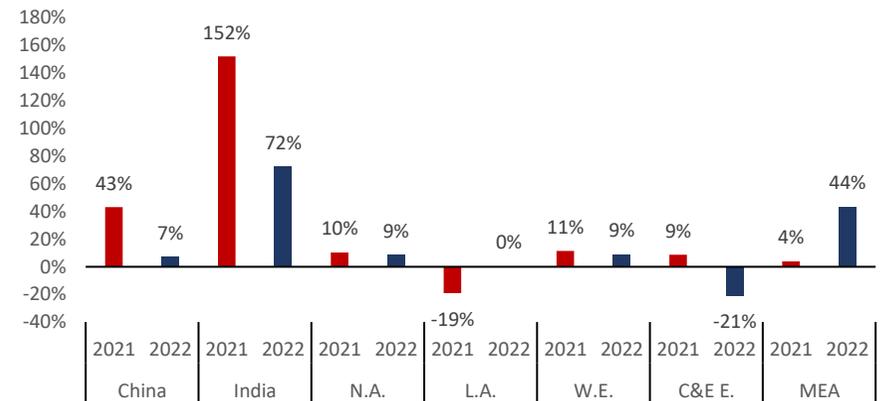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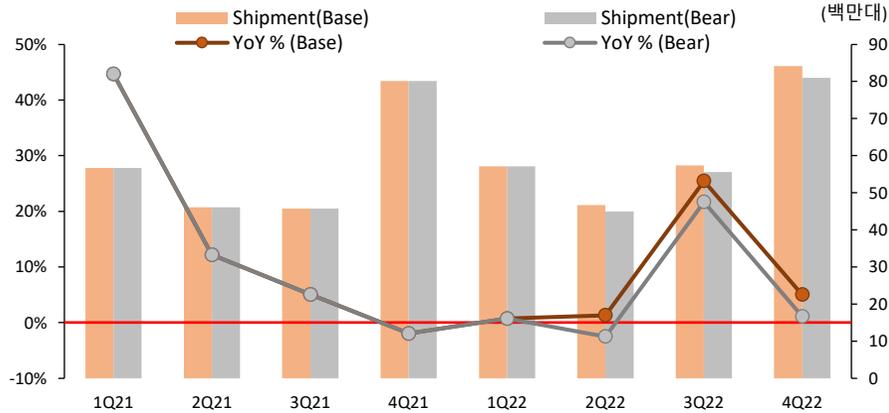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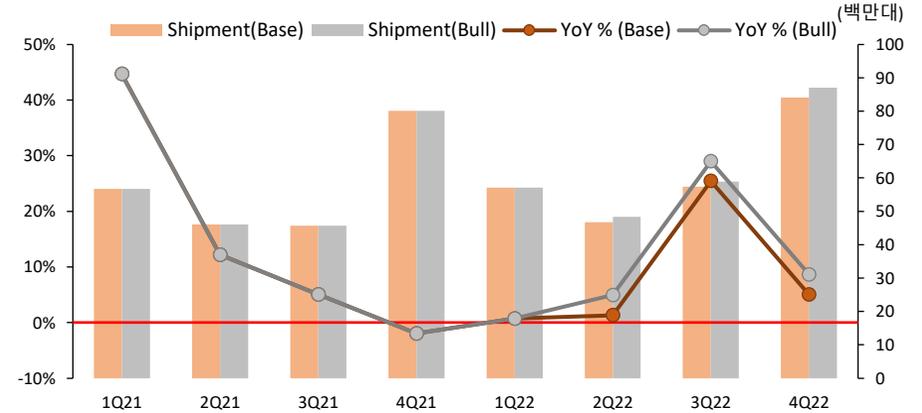
Apple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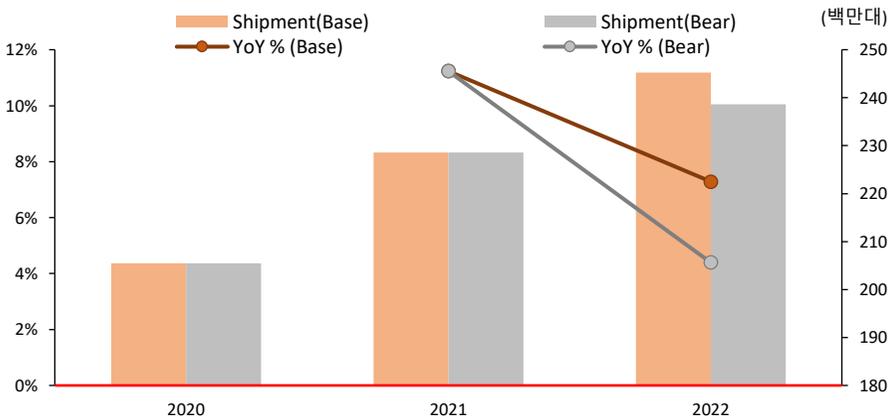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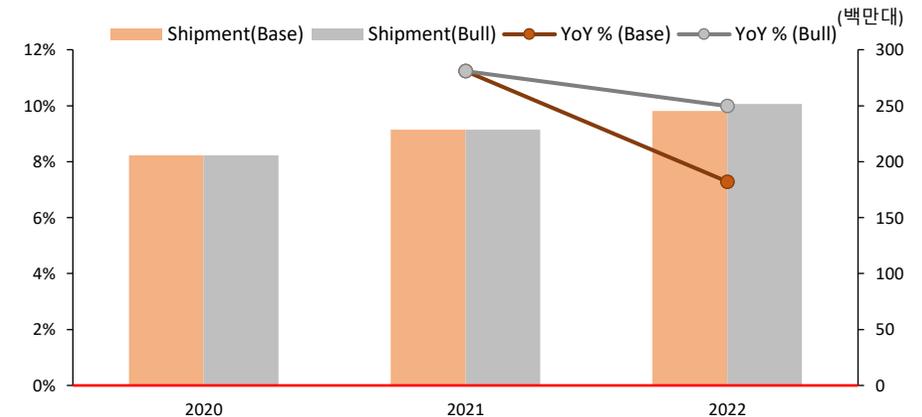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Huawei: 사실상 명맥을 이은 Ho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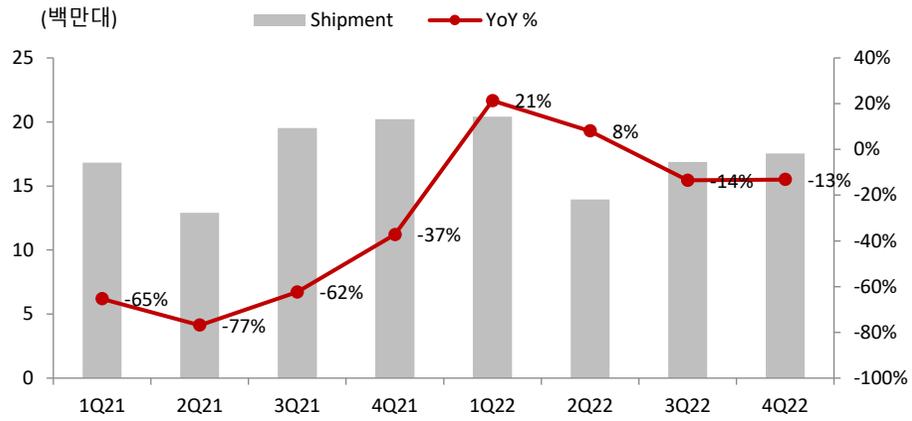
- 2021년 출하량: 69백만대 YoY -63% 기록
- 2022년 출하량: 67 ~ 71백만대 YoY -4 ~ +2% band 추정
- Huawei 중저가 영역은 Honor가 다수 흡수. Honor 2021년 출하량은 4,330만대. 1Q22 1,420만대로 중국 수요 부진 속에서도 YoY +129% 성장. 중국 내에서는 Honor가 Huawei 명맥을 이은 브랜드라는 인식 지배적
- 중국 내 Huawei 고가 영역(600달러 이상)에서 점유율은 지속 하락세이나 여전히 20% 내외 차지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17	13	20	20	20	14	17	18		188	69	69
	Bear	17	13	20	20	20	13	17	17		188	69	67
	Bull	17	13	20	20	20	15	17	18		188	69	71
YoY %													
	Base	-65%	-77%	-62%	-37%	21%	8%	-14%	-13%		-22%	-63%	-1%
	Bear	-65%	-77%	-62%	-37%	21%	0%	-15%	-16%		-22%	-63%	-4%
	Bull	-65%	-77%	-62%	-37%	21%	16%	-12%	-11%		-22%	-63%	2%
M/S % in Base													
	Asia	68%	84%	96%	91%	94%	97%	97%	96%		69%	86%	96%
	China	56%	33%	24%	19%	15%	18%	17%	18%		57%	32%	17%
	India	0%	1%	0%	0%	0%	0%	0%	0%		0%	0%	0%
	Others	-15%	3%	13%	18%	19%	7%	9%	5%		5%	6%	10%
	N.A.	0%	0%	0%	0%	0%	0%	0%	0%		0%	0%	0%
	L.A.	6%	3%	1%	1%	0%	0%	0%	0%		7%	2%	0%
	W.E.	5%	3%	1%	1%	1%	2%	2%	2%		6%	2%	2%
	C&E E.	13%	6%	1%	5%	2%	1%	2%	2%		10%	6%	2%
	MEA	8%	4%	1%	1%	2%	0%	0%	0%		8%	3%	1%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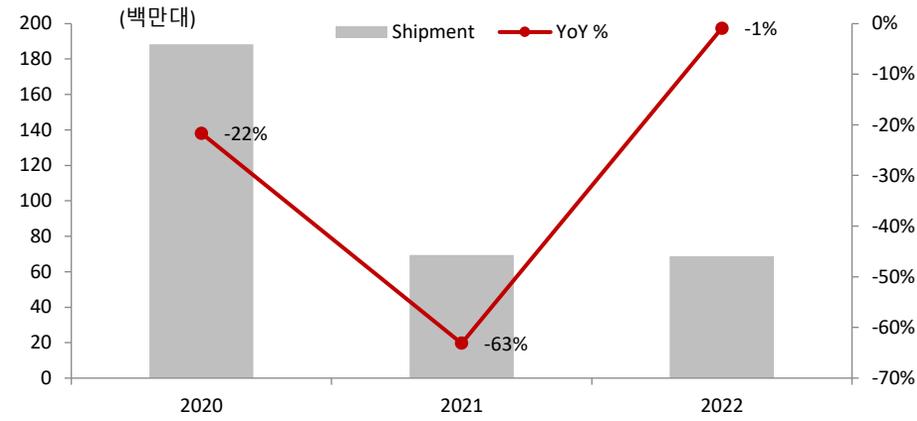
Huawei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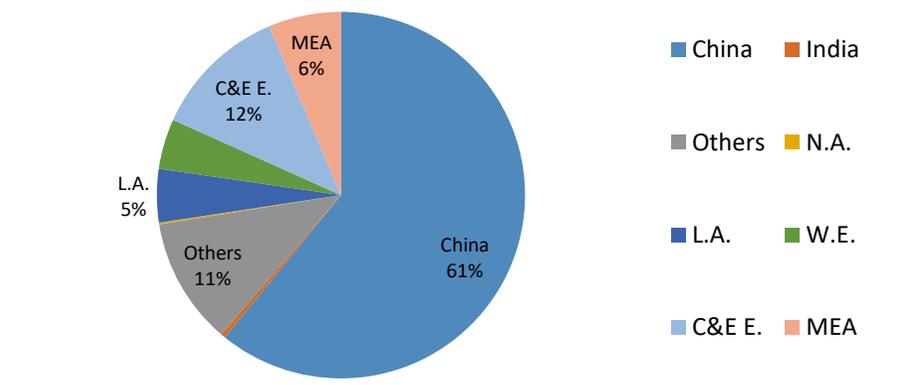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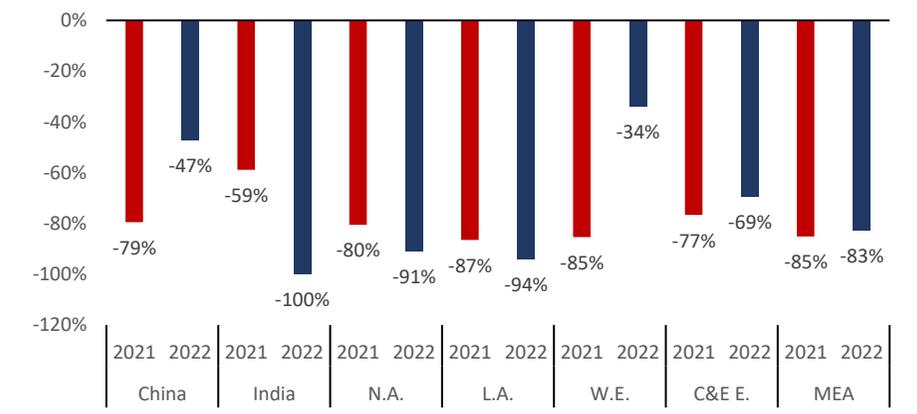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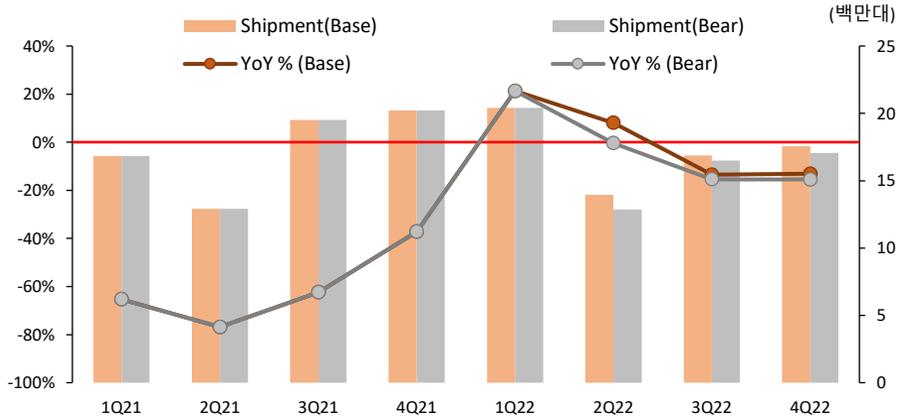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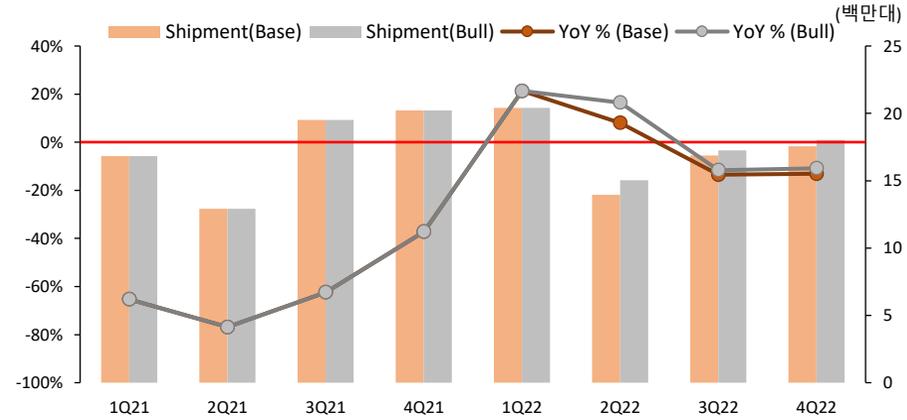
Huawei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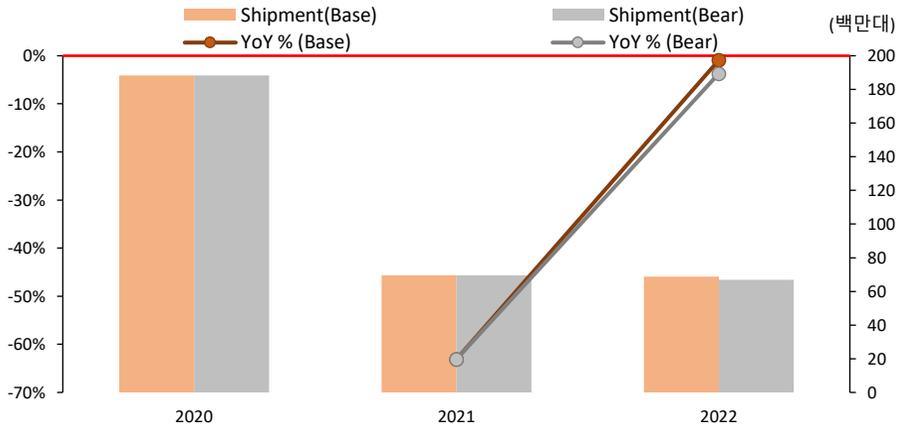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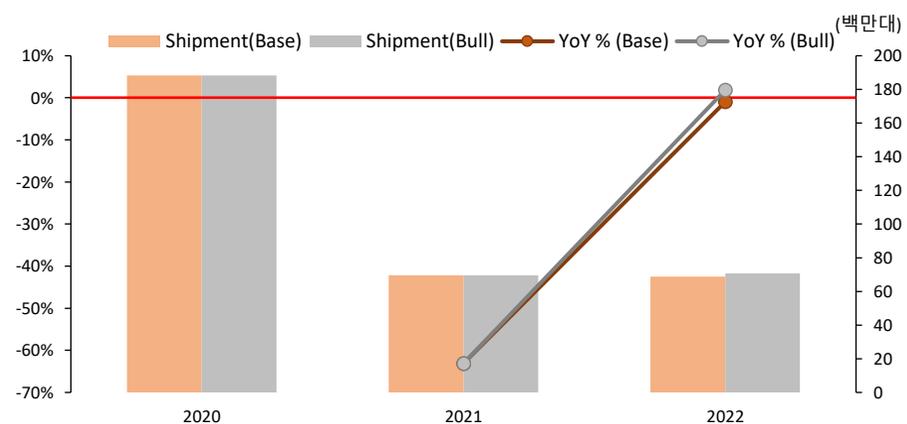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9억대 YoY +31% 기록
- 2022년 출하량: 1.6 ~ 1.7억대 YoY -16 ~ -11% band 추정
- 연초 2억대 달성 목표는 사실상 불투명. 중국 락다운에 따른 영향. 중국 내에서 저가 영역 점유율 부진. 그동안 Huawei의 반사 수혜를 누리고 있었으나 최근 Honor가 저가 영역에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중(100-199\$ M/S 1H21 9% → 2H22 24%)
- 인도에서는 탈세 의혹이 불거져 조사 중. 인도 내 입지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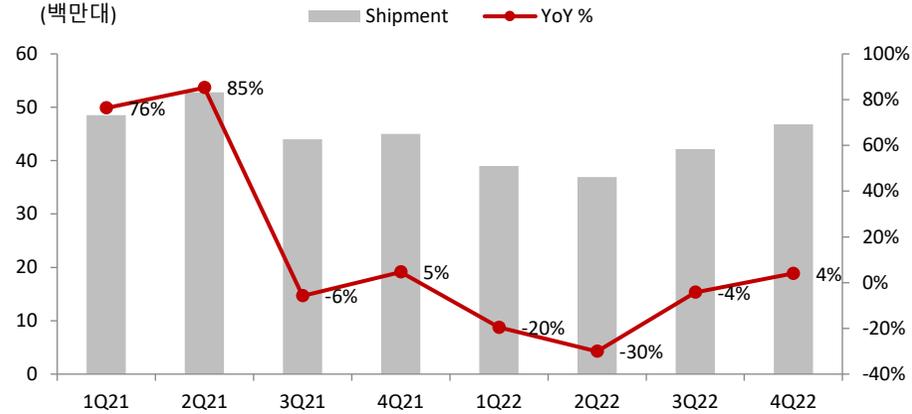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49	53	44	45	39	37	42	47		146	190	165
	Bear	49	53	44	45	39	35	41	45		146	190	159
	Bull	49	53	44	45	39	39	43	48		146	190	169
YoY %													
	Base	76%	85%	-6%	5%	-20%	-30%	-4%	4%		17%	31%	-13%
	Bear	76%	85%	-6%	5%	-20%	-34%	-8%	0%		17%	31%	-16%
	Bull	76%	85%	-6%	5%	-20%	-27%	-1%	7%		17%	31%	-11%
M/S % in Base													
	Asia	61%	57%	59%	60%	57%	59%	60%	56%		68%	59%	58%
	China	27%	27%	24%	22%	28%	24%	25%	24%		23%	25%	25%
	India	20%	16%	21%	25%	22%	23%	25%	24%		26%	20%	24%
	Others	14%	14%	14%	13%	7%	12%	9%	8%		18%	14%	9%
	N.A.	0%	0%	0%	0%	0%	0%	0%	0%		0%	0%	0%
	L.A.	8%	9%	9%	8%	12%	11%	11%	10%		4%	9%	11%
	W.E.	8%	9%	10%	10%	10%	10%	11%	14%		9%	9%	12%
	C&E E.	14%	15%	13%	13%	12%	8%	9%	10%		14%	14%	10%
	MEA	9%	10%	8%	9%	8%	11%	9%	10%		6%	9%	10%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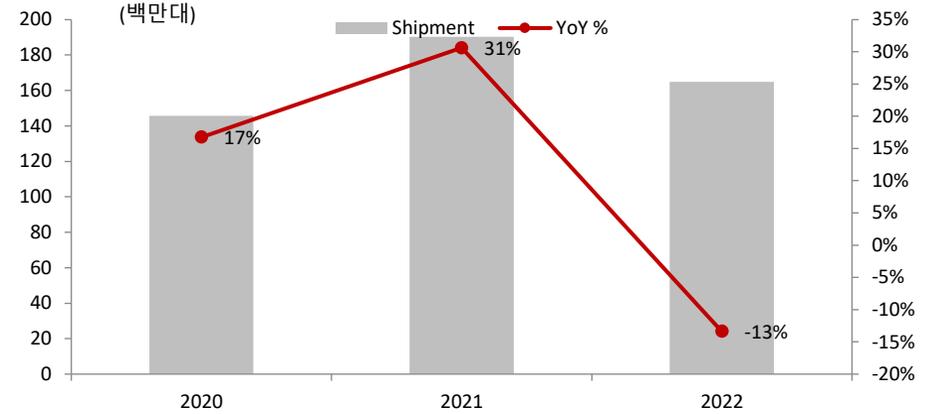
Xiaomi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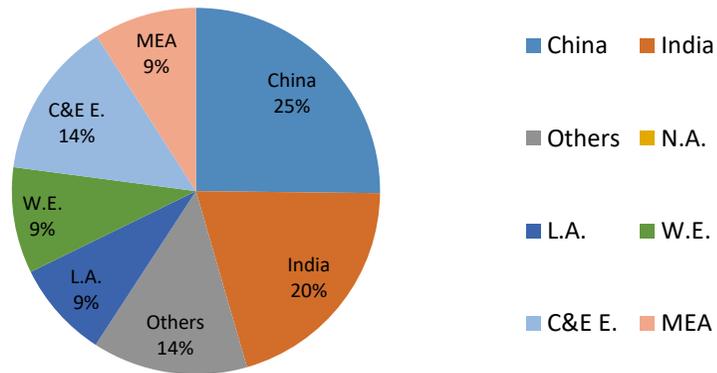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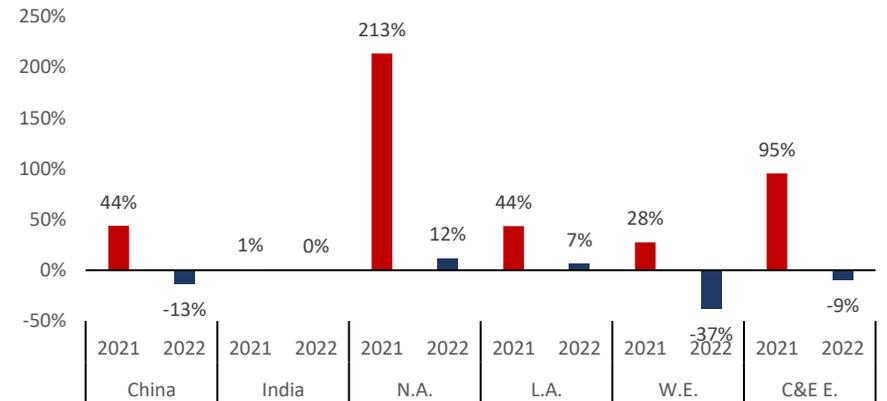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자료: SK증권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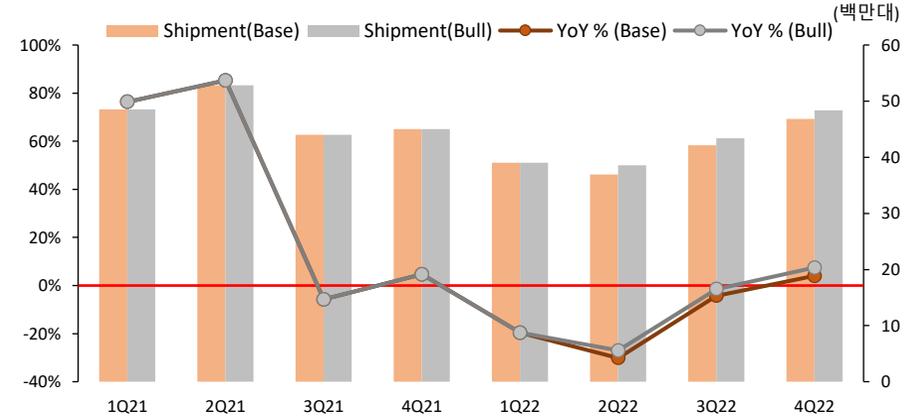
Xiaomi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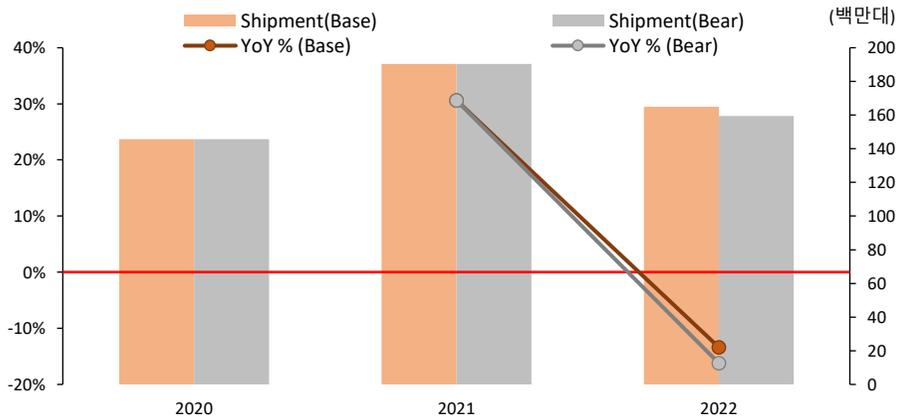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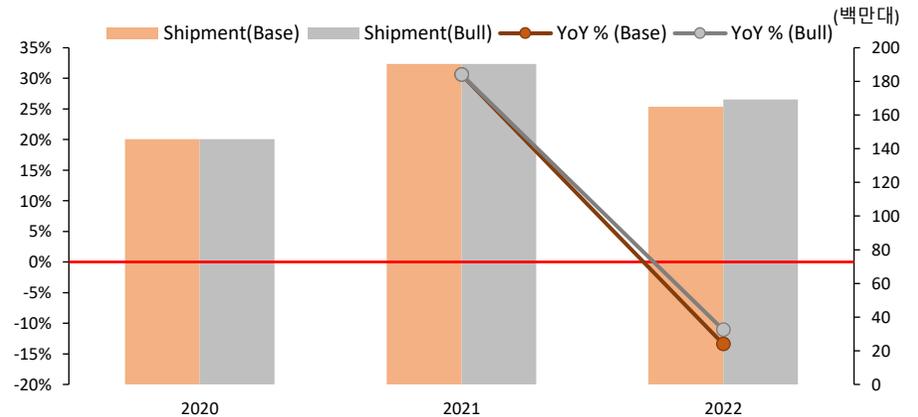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Oppo

- 2021년 출하량: 1.4억대 YoY +19% 기록
- 2022년 출하량: 1.2 ~ 1.3억대 YoY -12 ~ -7% band 추정

▪ Vivo

- 2021년 출하량: 1.3억대 YoY +17% 기록
- 2022년 출하량: 1.1 ~ 1.2억대 YoY -14 ~ -8% band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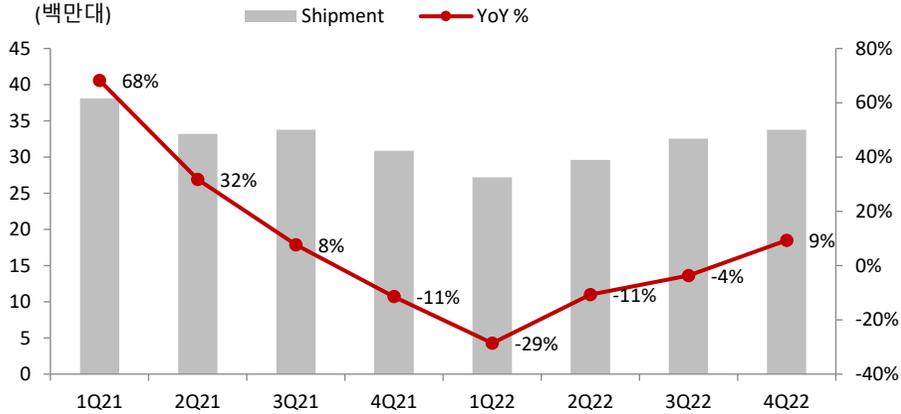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Oppo Shipment												
Base	38	33	34	31	27	30	33	34		114	136	123
Bear	38	33	34	31	27	28	32	33		114	136	119
Bull	38	33	34	31	27	31	33	35		114	136	126
YoY %												
Base	68%	32%	8%	-11%	-29%	-11%	-4%	9%		-1%	19%	-9%
Bear	68%	32%	8%	-11%	-29%	-15%	-7%	5%		-1%	19%	-12%
Bull	68%	32%	8%	-11%	-29%	-7%	-1%	13%		-1%	19%	-7%
Vivo Shipment												
Base	37	32	34	28	26	27	31	32		112	130	117
Bear	37	32	34	28	26	26	30	31		112	130	113
Bull	37	32	34	28	26	29	32	33		112	130	120
YoY %												
Base	85%	26%	4%	-17%	-31%	-13%	-7%	14%		5%	17%	-11%
Bear	85%	26%	4%	-17%	-31%	-18%	-10%	10%		5%	17%	-14%
Bull	85%	26%	4%	-17%	-31%	-8%	-5%	18%		5%	17%	-8%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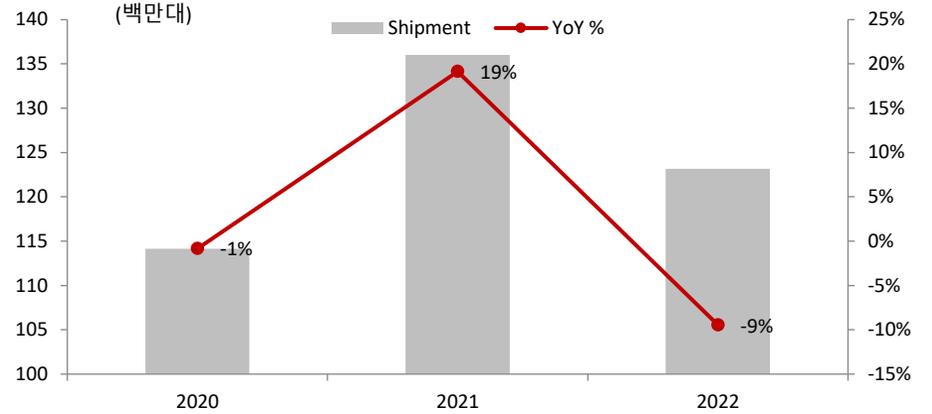
Opportunity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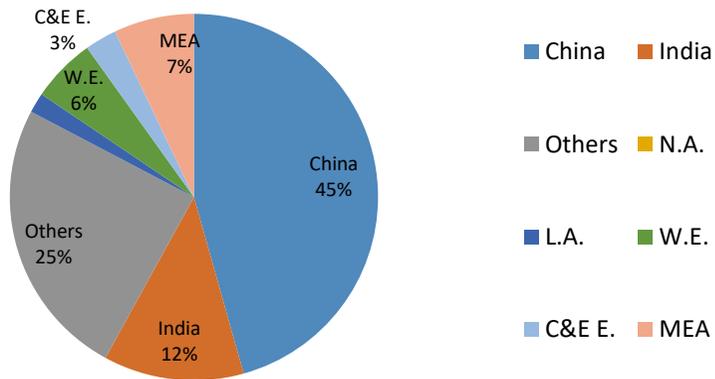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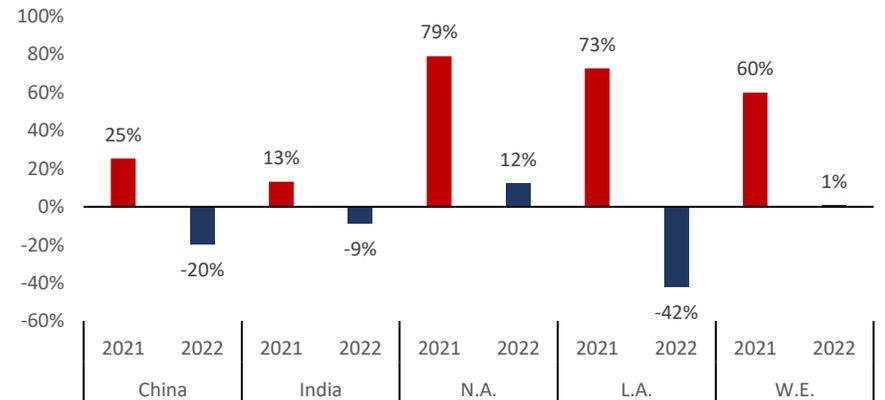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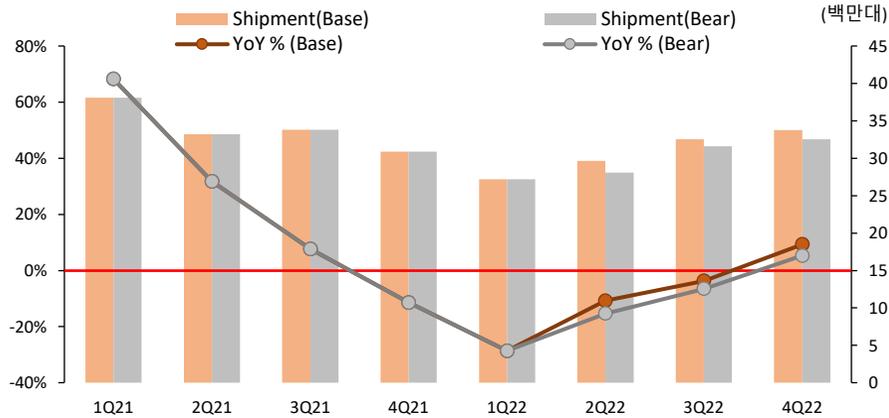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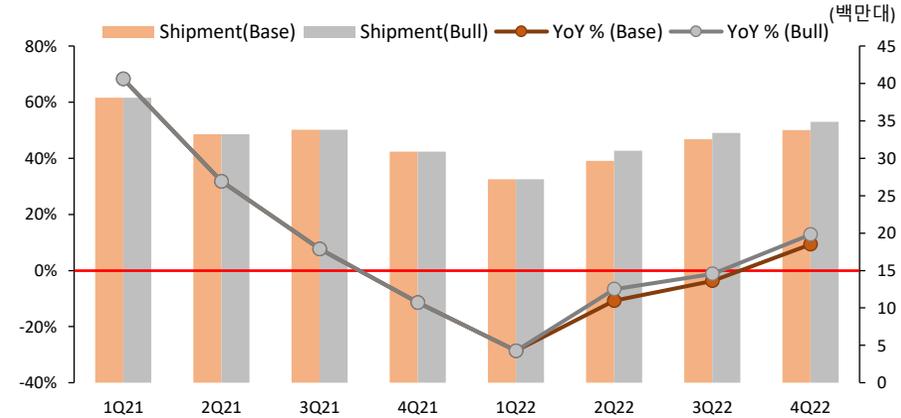
Opportunity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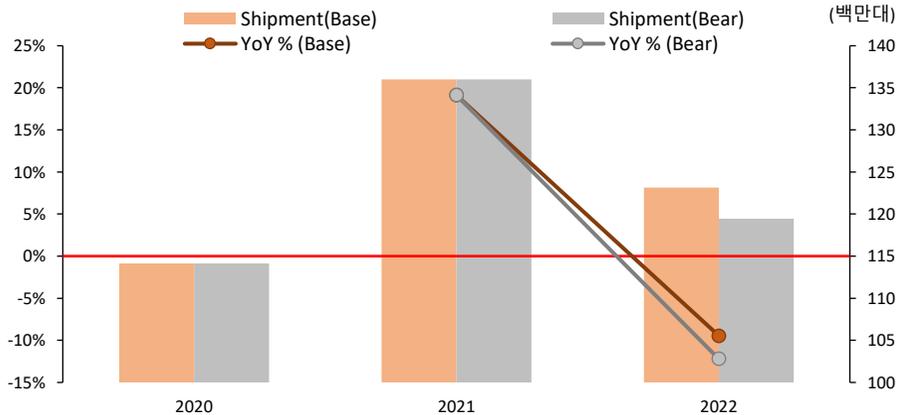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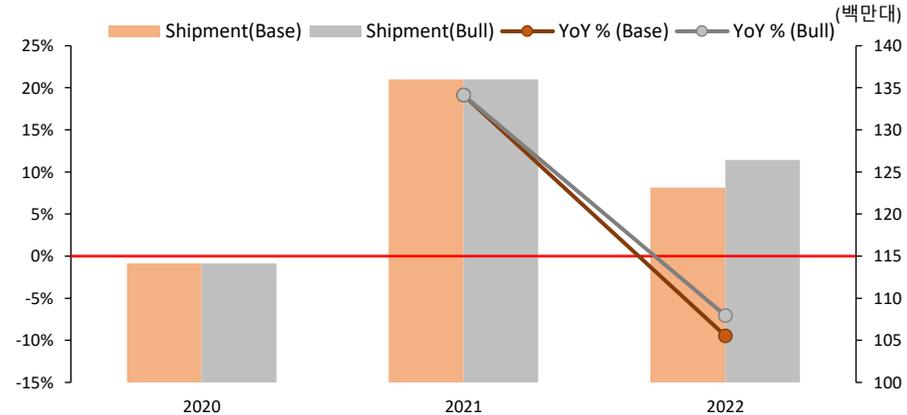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지역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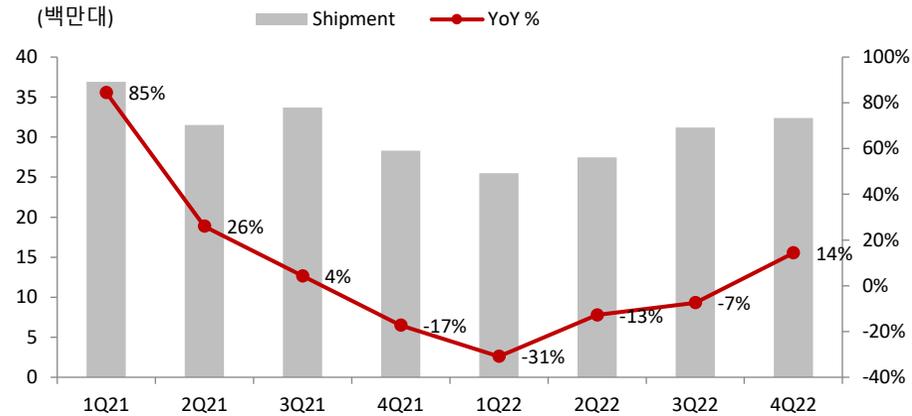
지역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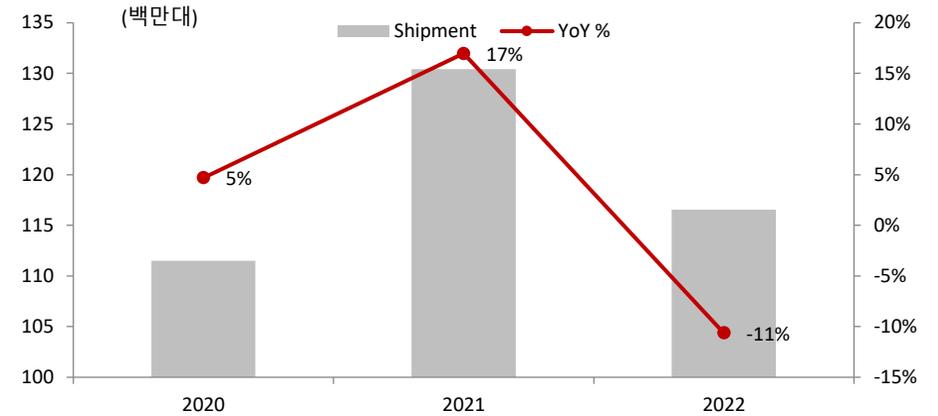
Vivo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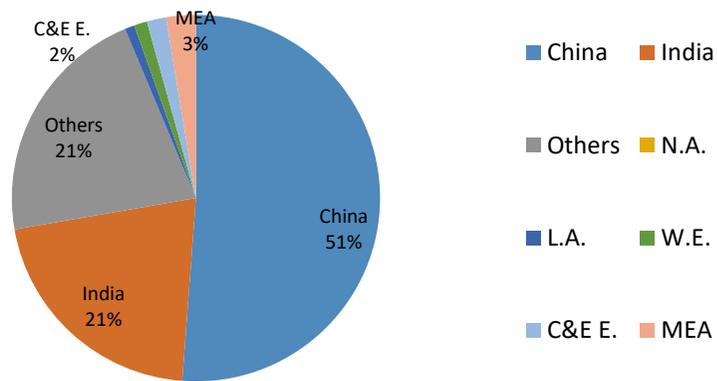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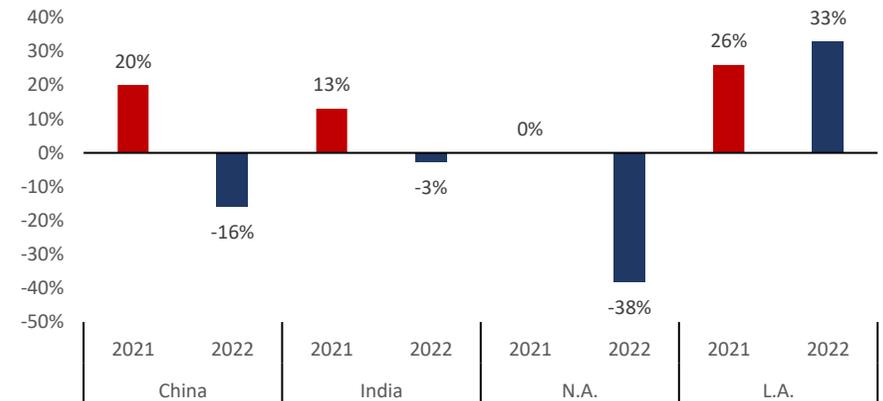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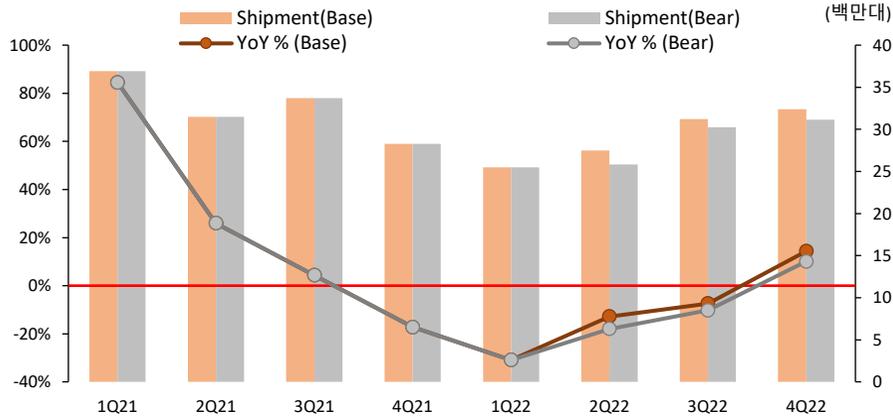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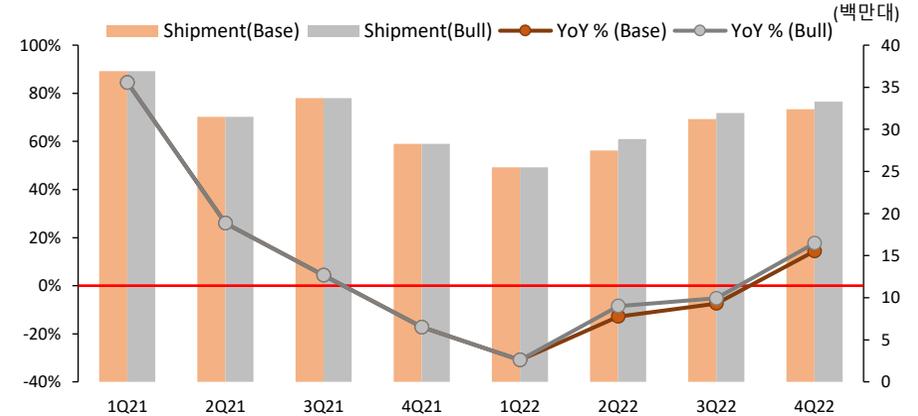
Vivo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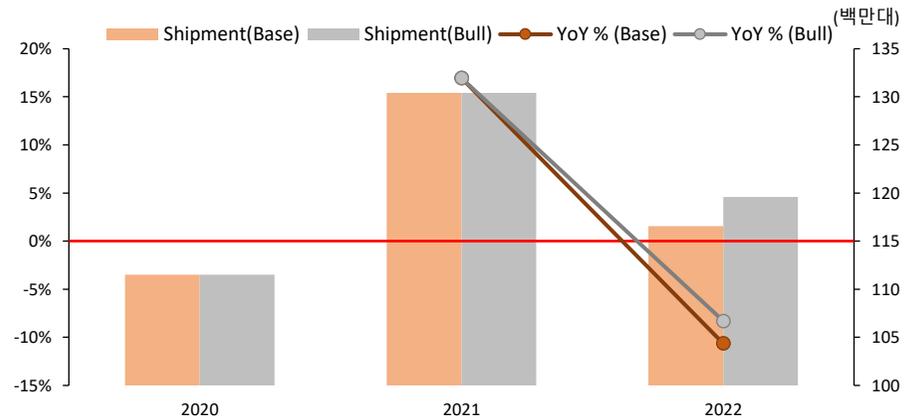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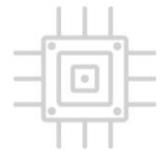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Chapter 4

지역별 영향 분석





- 2021년 출하량: 3.1억대 YoY -2% 기록
- 2022년 출하량: 2.8 ~ 3.0억대 YoY -10 ~ -4% band 추정
- 전체 수요의 25%, 전체 생산의 60% 이상 차지. 중국 주요 생산 거점 도시 락다운으로 수요와 공급 타격 모두 심각. 2Q22까지 크게 역성장
- 6월부터 상하이로 중심으로 락다운 일부 완화. 1H22 기저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만큼 2H22 회복 강도는 생각보다 강할 것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86	75	76	75	74	63	74	79		319	312	290
Bear	86	75	76	75	74	58	72	77		319	312	281
Bull	86	75	76	75	74	68	75	81		319	312	299
YoY %												
Base	18%	-6%	-9%	-9%	-14%	-16%	-4%	6%		-17%	-2%	-7%
Bear	18%	-6%	-9%	-9%	-14%	-23%	-6%	3%		-17%	-2%	-10%
Bull	18%	-6%	-9%	-9%	-14%	-9%	-2%	8%		-17%	-2%	-4%
M/S % in Base												
Samsung	1%	1%	1%	1%	1%	1%	1%	1%		1%	1%	1%
Apple	15%	13%	12%	23%	18%	13%	17%	23%		11%	16%	18%
Huawei	11%	6%	6%	5%	4%	4%	4%	4%		34%	7%	4%
Xiaomi	15%	19%	14%	13%	15%	14%	14%	14%		10%	15%	14%
Oppo	22%	20%	20%	17%	17%	17%	17%	17%		16%	20%	17%
Vivo	21%	23%	22%	19%	20%	19%	19%	19%		17%	21%	19%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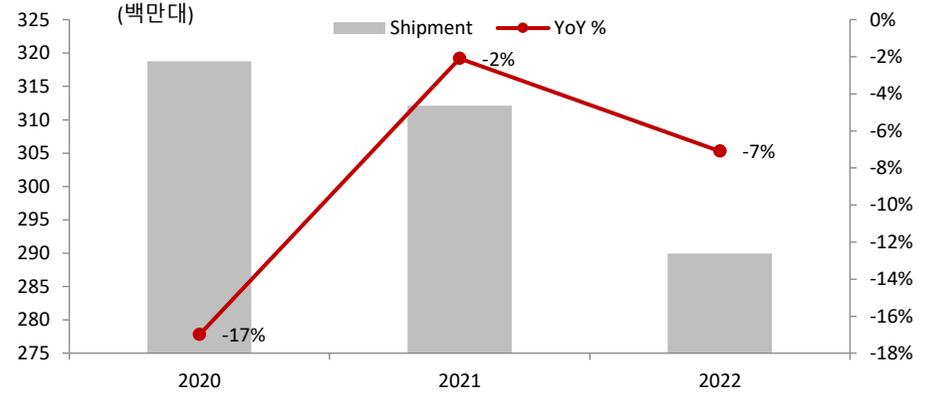
중국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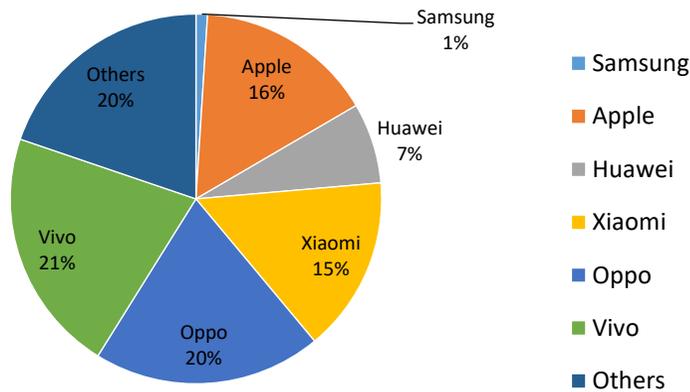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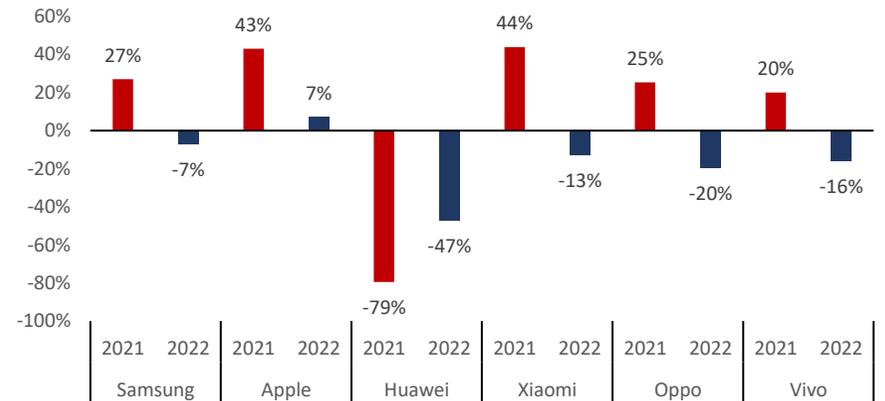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Huawei에서는 Honor 제외)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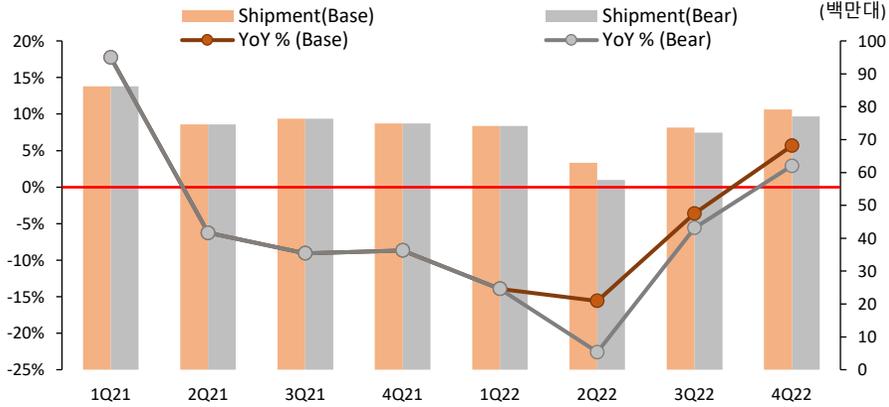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Huawei에서는 Honor 제외)



자료: SK증권

중국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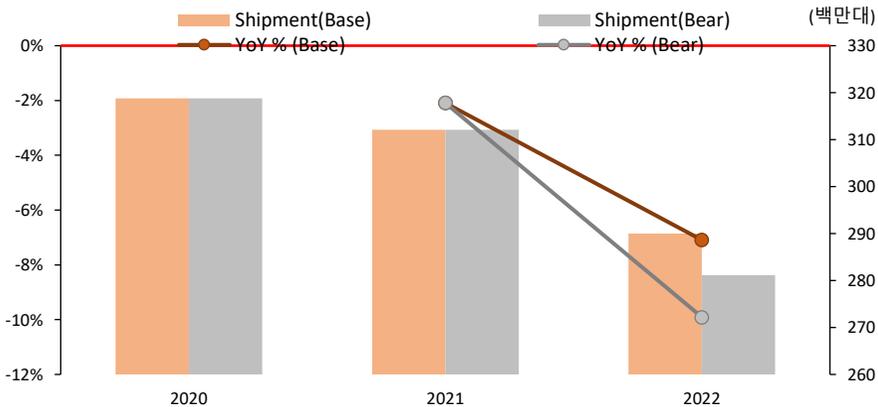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6억대 YoY +12% 기록
- 2022년 출하량: 1.7 ~ 1.8억대 YoY +4 ~ +11% band 추정
-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수요 하향 수정. 그럼에도 스마트폰 신성장 시장임은 분명. 주요 제조사의 경쟁 심화
- 삼성전자와 Xiaomi 점유율 대립 구도 지속. Realme와 Onelplus 같은데 2nd-tier 업체들은 부품 조달 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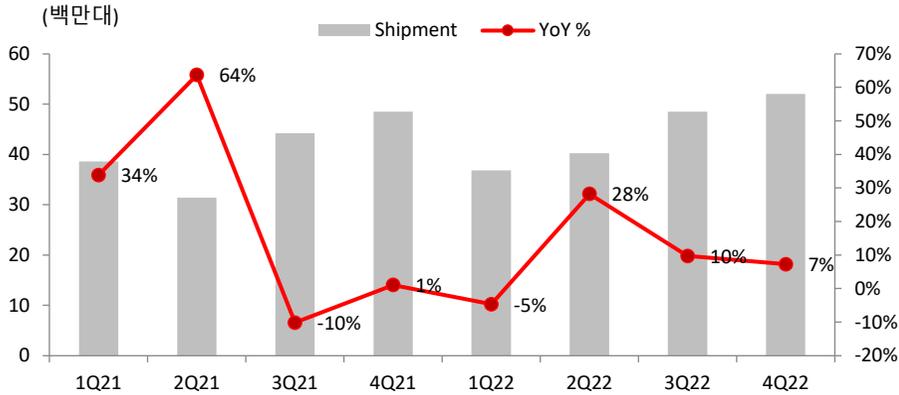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9	31	44	49	37	40	48	52		145	163	178
Bear	39	31	44	49	37	38	46	49		145	163	169
Bull	39	31	44	49	37	41	49	53		145	163	180
YoY %												
Base	34%	64%	-10%	1%	-5%	28%	10%	7%		-8%	12%	9%
Bear	34%	64%	-10%	1%	-5%	20%	4%	0%		-8%	12%	4%
Bull	34%	64%	-10%	1%	-5%	31%	12%	10%		-8%	12%	11%
M/S % in Base												
Samsung	20%	19%	19%	16%	18%	24%	21%	20%		23%	18%	21%
Apple	3%	2%	3%	5%	4%	5%	6%	6%		1%	3%	5%
Huawei	0%	0%	0%	0%	0%	0%	0%	0%		0%	0%	0%
Xiaomi	25%	26%	21%	23%	23%	21%	22%	22%		26%	24%	22%
Oppo	11%	12%	11%	8%	8%	9%	9%	9%		10%	10%	9%
Vivo	17%	19%	17%	15%	15%	15%	15%	15%		17%	17%	15%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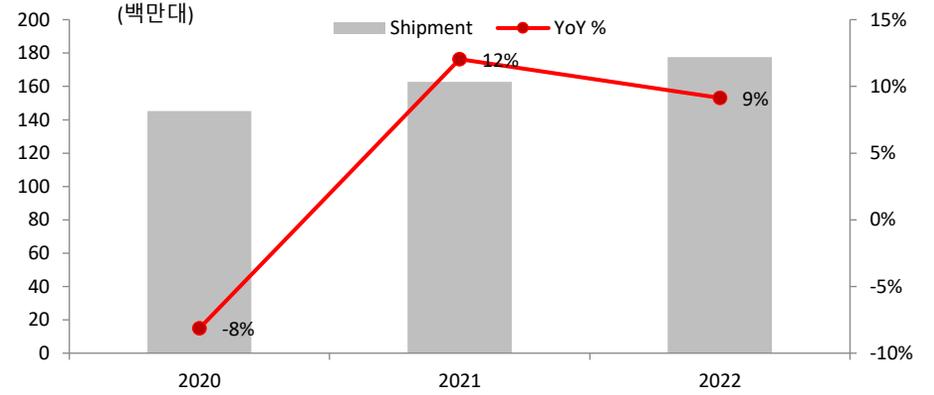
인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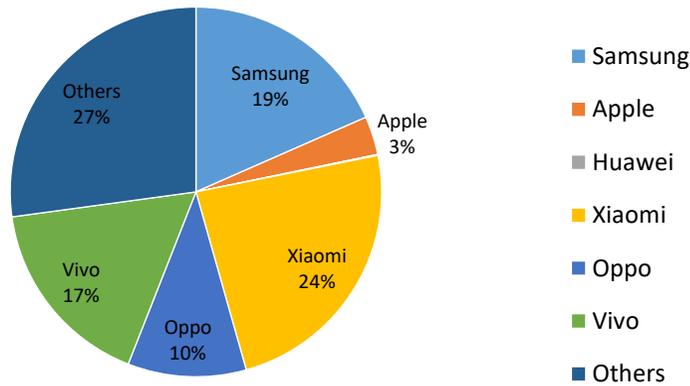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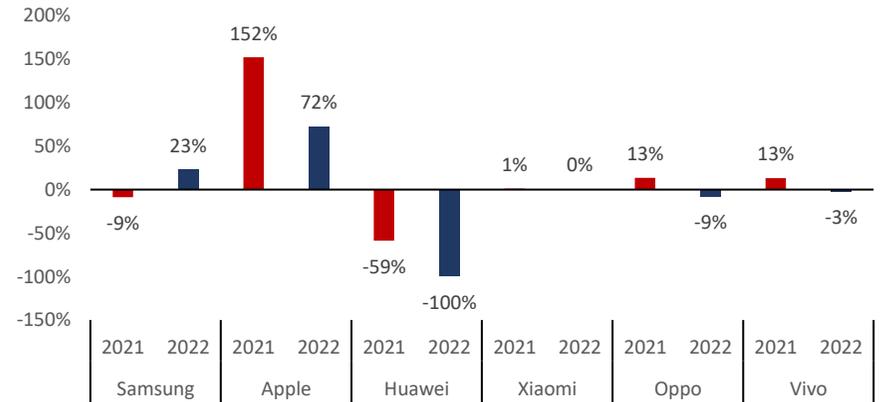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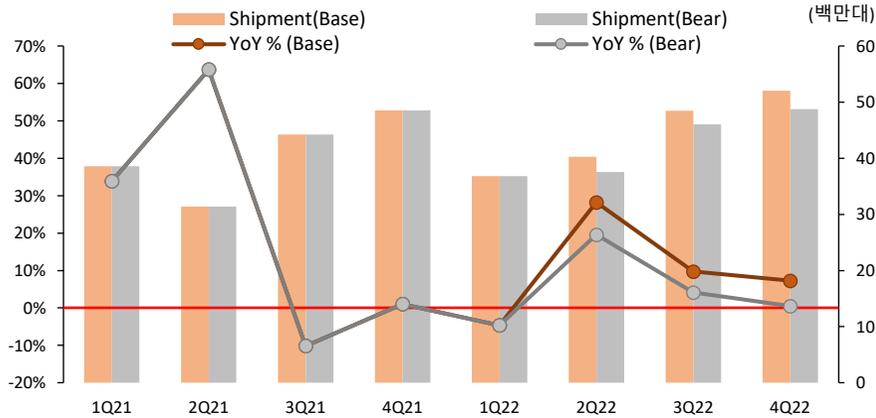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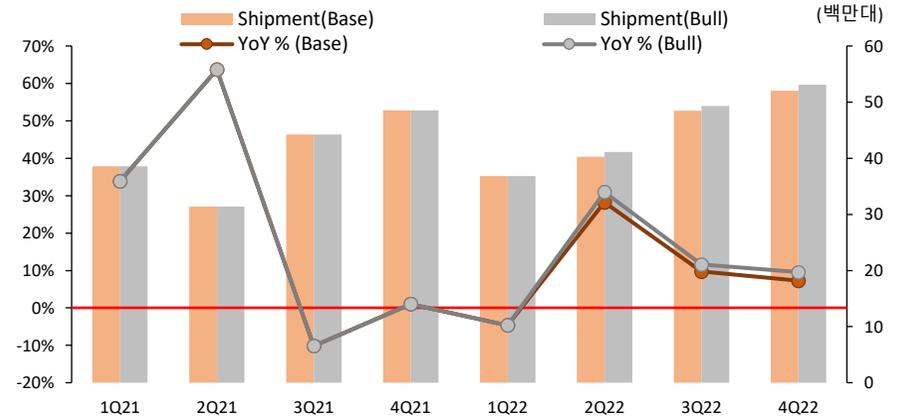
인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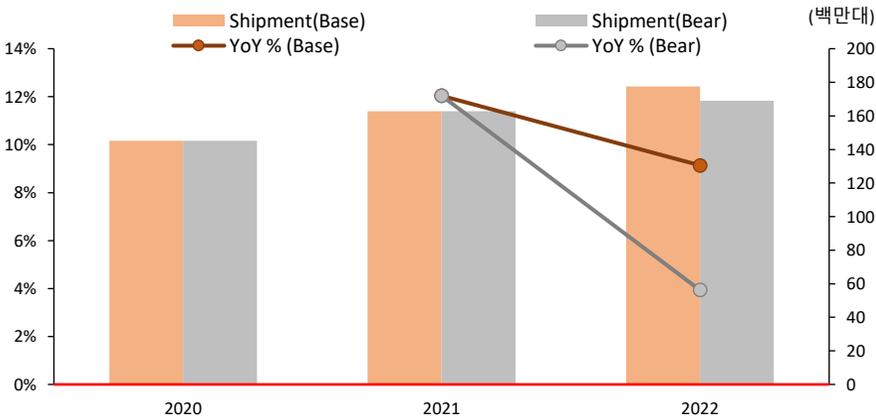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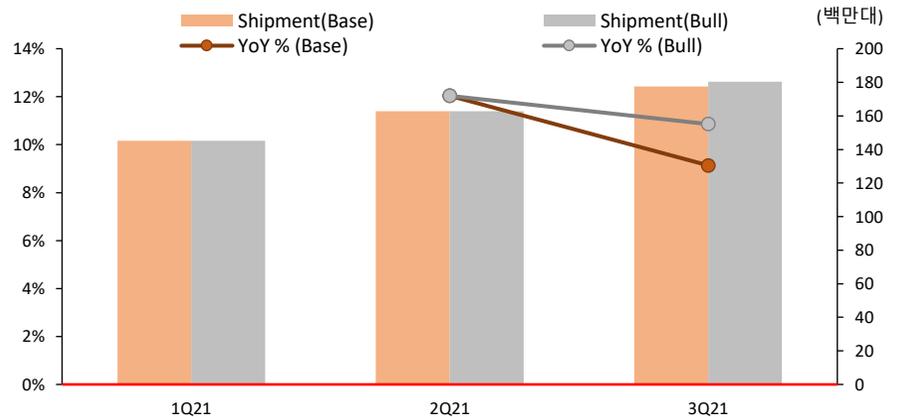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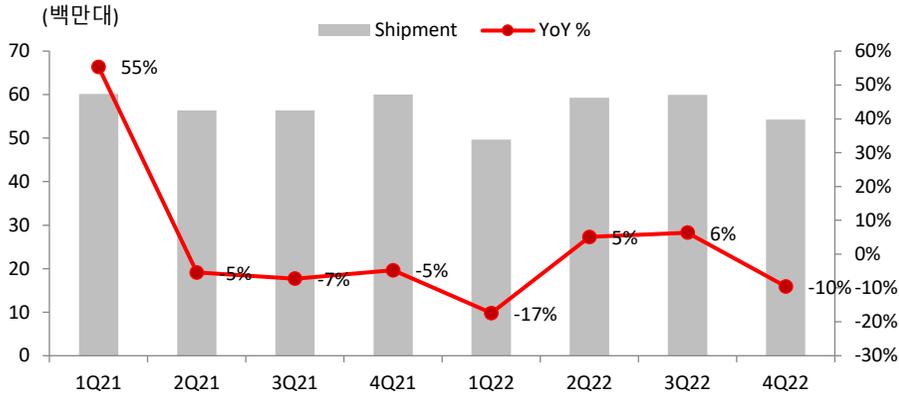
- 2021년 출하량: 2.3억대 YoY +5% 기록
- 2022년 출하량: 2.2 ~ 2.3억대 YoY -6 ~ -2% band 추정
- COVID-19로부터 점점 기지개를 펴는 모습. 그러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수요 하향 수정
- Huawei 점유율은 삼성전자, Vin, OVX 등이 흡수
- 제품 라인업은 100-150달러대로 삼성전자 갤럭시M의 경쟁 제품 위주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60	56	56	60	50	59	60	54		222	233	223
Bear	60	56	56	60	50	58	58	52		222	233	218
Bull	60	56	56	60	50	61	62	56		222	233	228
YoY %												
Base	55%	-5%	-7%	-5%	-17%	5%	6%	-10%		5%	5%	-4%
Bear	55%	-5%	-7%	-5%	-17%	3%	3%	-13%		5%	5%	-6%
Bull	55%	-5%	-7%	-5%	-17%	7%	9%	-6%		5%	5%	-2%
M/S % in Base												
Samsung	23%	16%	20%	18%	29%	25%	24%	26%		15%	19%	26%
Apple	17%	18%	17%	23%	15%	17%	18%	24%		21%	19%	18%
Huawei	-4%	1%	4%	6%	8%	2%	2%	2%		4%	2%	3%
Xiaomi	11%	13%	11%	9%	6%	7%	6%	7%		12%	11%	7%
Oppo	16%	14%	14%	14%	15%	16%	16%	16%		16%	14%	16%
Vivo	17%	11%	12%	8%	7%	12%	12%	12%		12%	12%	11%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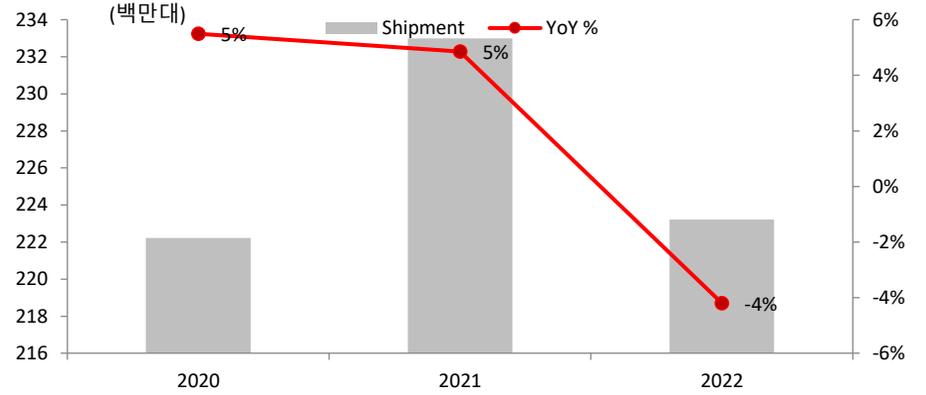
기타 아시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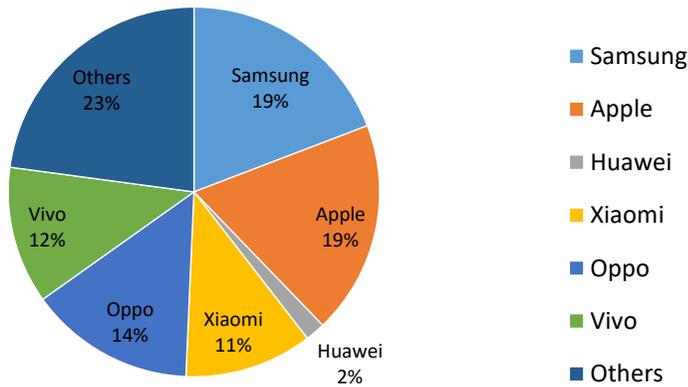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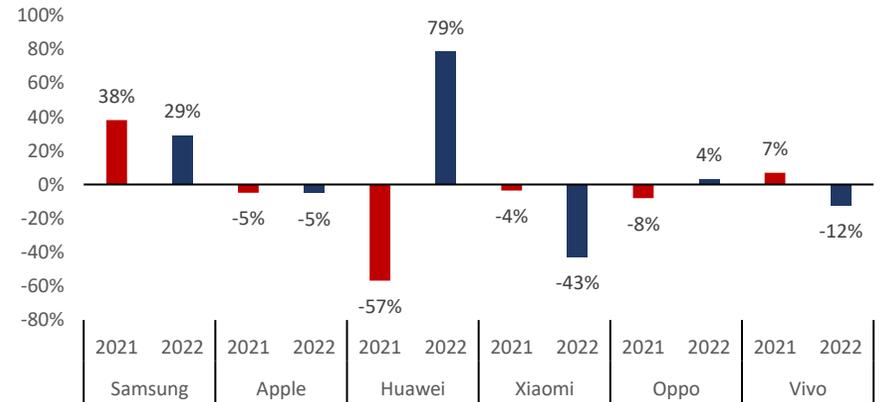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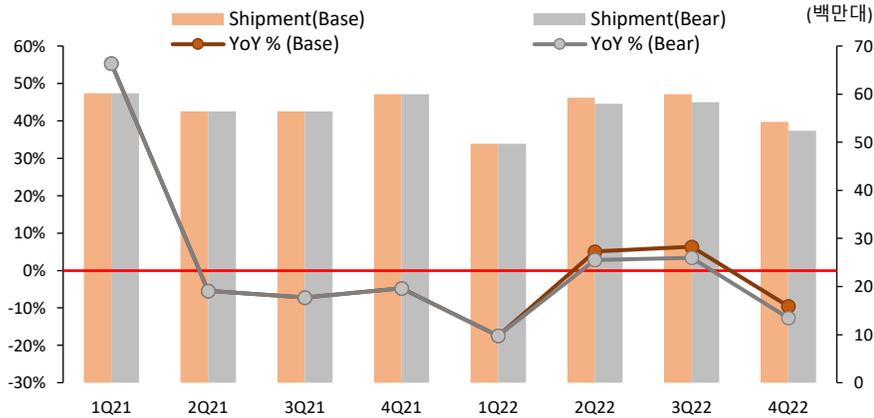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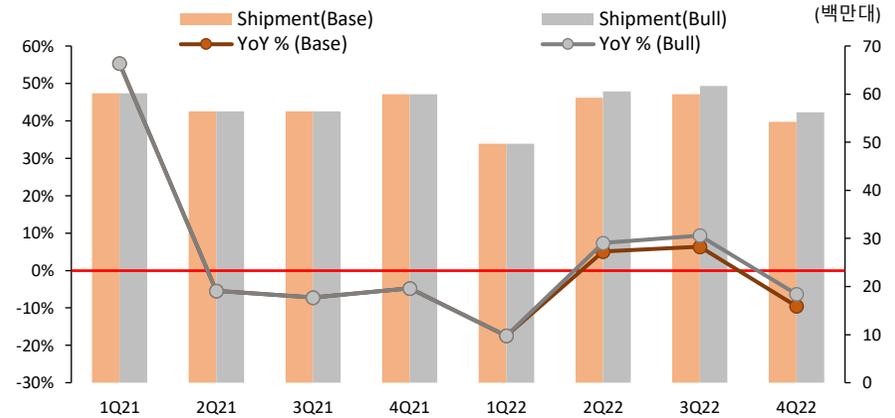
기타 아시아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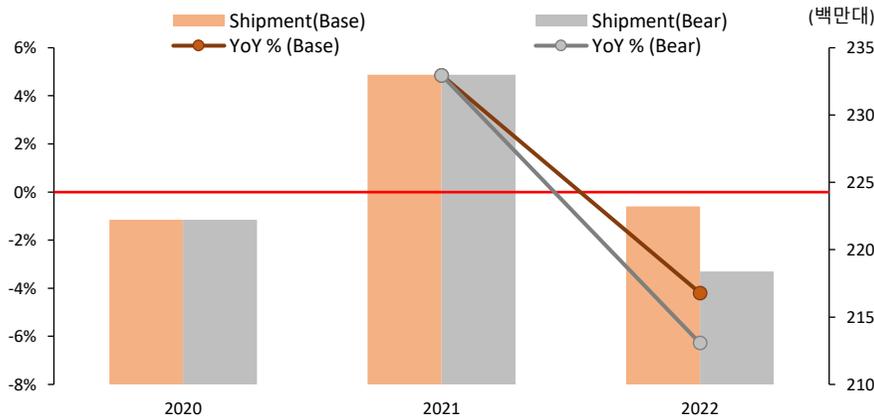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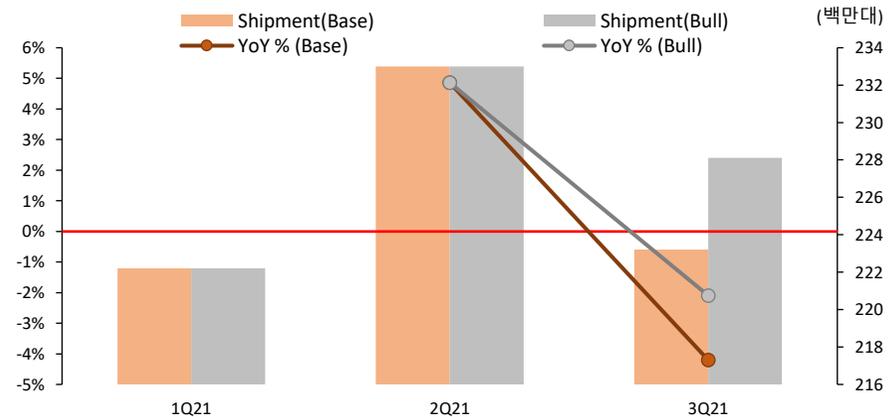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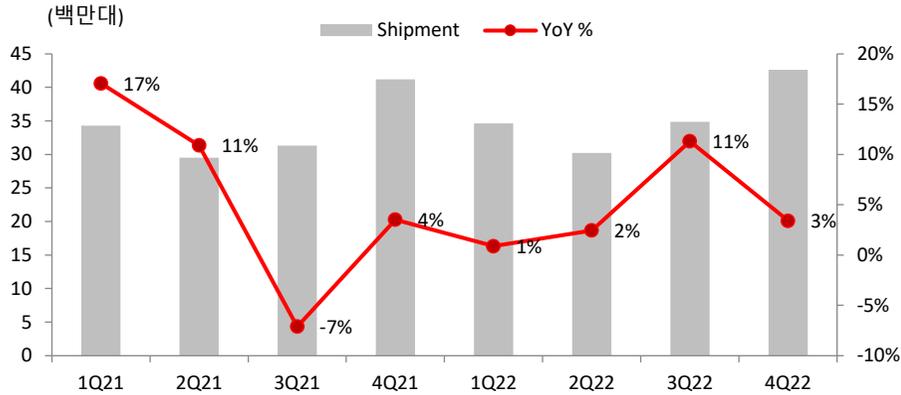
- 2021년 출하량: 1.4억대 YoY +5% 기록
- 2022년 출하량: 1.4 ~ 1.5억대 YoY +2 ~ +7% band 추정
- 소비 여력이 높은 지역으로 플래그쉽 모델의 주요 수요처.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서 예외는 아니나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지역 대비 안정적인 수요 전망
- 1Q22 갤럭시 S22 출시로 삼성전자 점유율 상승이 있었으나 아이폰 13의 흥행 지속으로 상승폭은 제한적. 하반기는 Apple이 재차 시장 주도 예상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4	30	31	41	35	30	35	43		129	136	142
Bear	34	30	31	41	35	30	34	41		129	136	139
Bull	34	30	31	41	35	31	36	44		129	136	145
YoY %												
Base	17%	11%	-7%	4%	1%	2%	11%	3%		-10%	5%	4%
Bear	17%	11%	-7%	4%	1%	0%	8%	0%		-10%	5%	2%
Bull	17%	11%	-7%	4%	1%	5%	14%	7%		-10%	5%	7%
M/S % in Base												
Samsung	29%	31%	38%	25%	32%	29%	36%	23%		27%	30%	30%
Apple	39%	37%	37%	49%	42%	37%	39%	51%		39%	41%	43%
Huawei	0%	0%	0%	0%	0%	0%	0%	0%		0%	0%	0%
Xiaomi												
Oppo												
Vivo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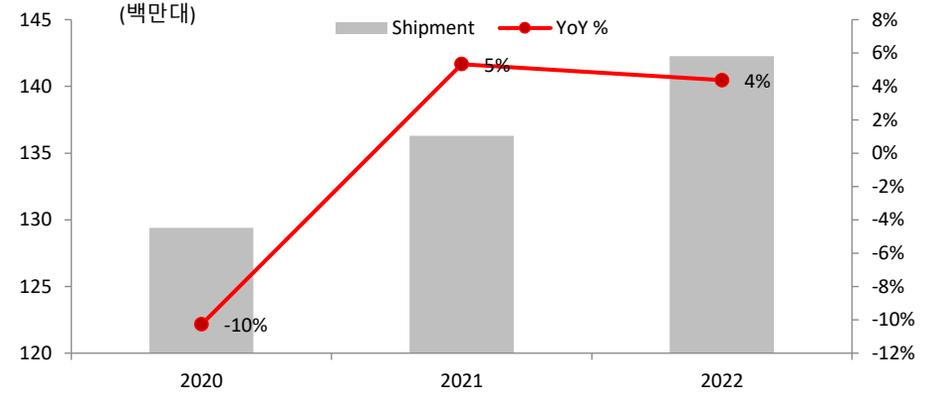
북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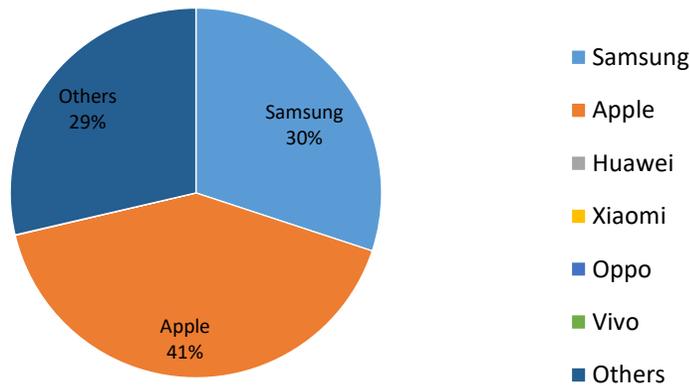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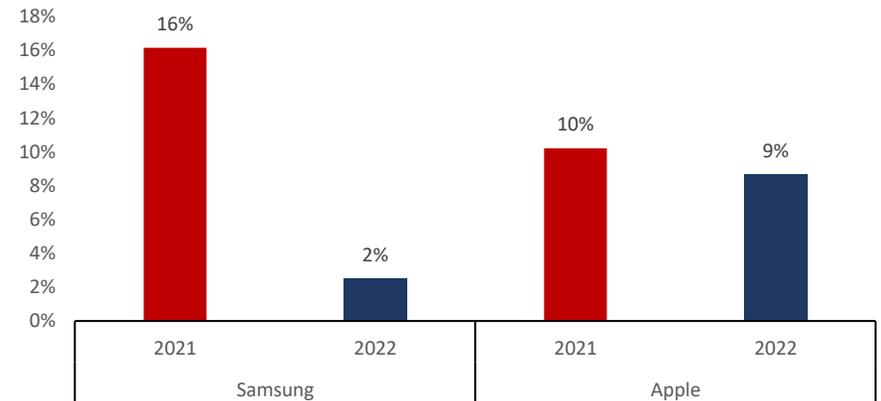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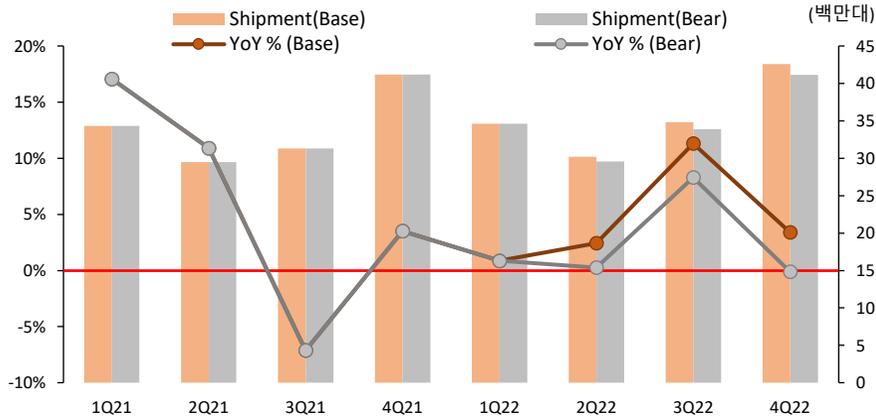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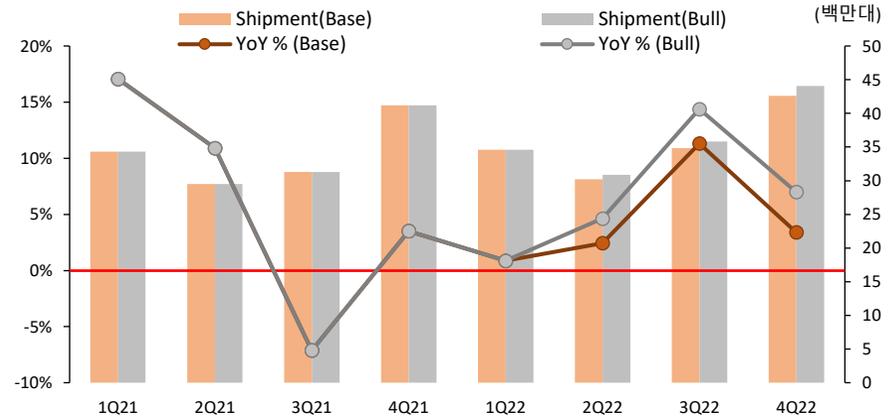
북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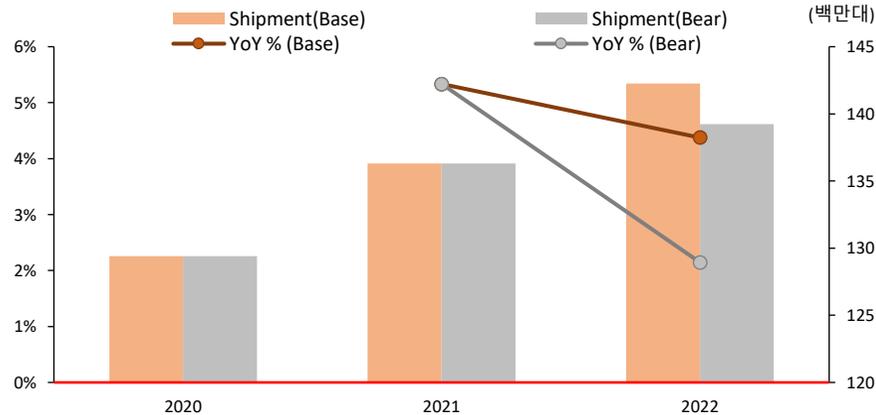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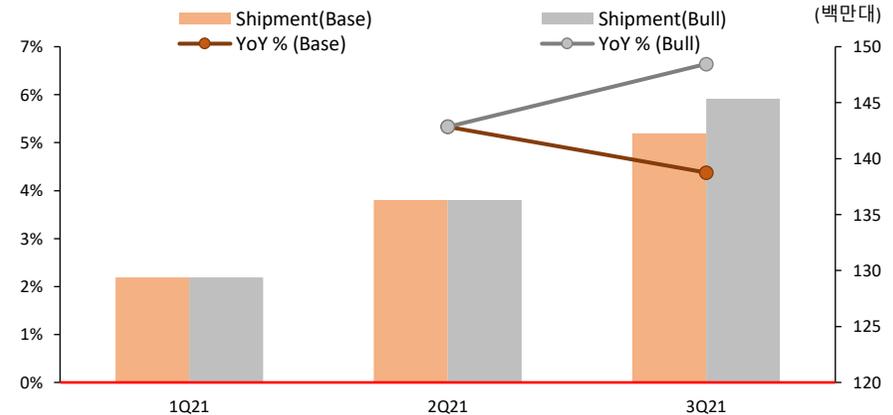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3억대 YoY +3% 기록
- 2022년 출하량: 1.3억대 수준 YoY -5 ~ +0% band 추정
-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수요 불안정. 여기에 기후 변화에 따른 흉작까지 악재가 겹치는 상황.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트 수요 부진 예상
- 남미 지역 내 점유율 삼성전자 40%로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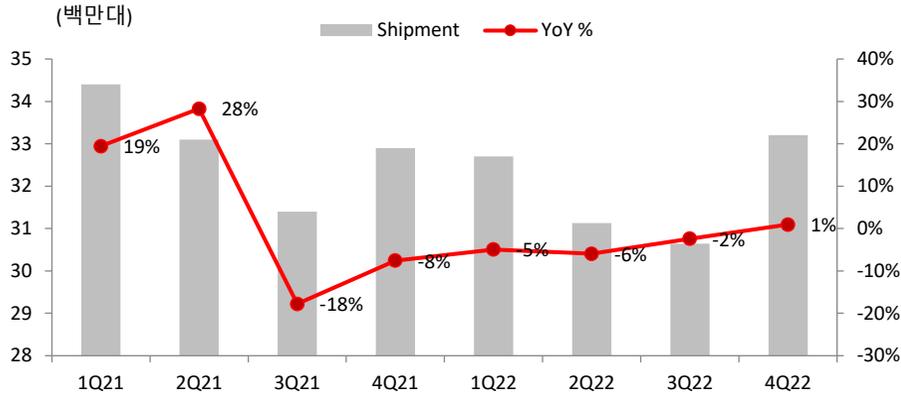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4	33	31	33	33	31	31	33		128	132	128
Bear	34	33	31	33	33	30	30	32		128	132	125
Bull	34	33	31	33	33	32	32	35		128	132	132
YoY %												
Base	19%	28%	-18%	-8%	-5%	-6%	-2%	1%		-10%	3%	-3%
Bear	19%	28%	-18%	-8%	-5%	-8%	-5%	-3%		-10%	3%	-5%
Bull	19%	28%	-18%	-8%	-5%	-3%	2%	6%		-10%	3%	0%
M/S % in Base												
Samsung	41%	34%	36%	36%	42%	38%	38%	39%		39%	37%	39%
Apple	10%	9%	9%	13%	12%	8%	9%	13%		13%	10%	11%
Huawei	3%	1%	0%	1%	0%	0%	0%	0%		10%	1%	0%
Xiaomi	11%	15%	13%	11%	14%	13%	15%	15%		4%	12%	14%
Oppo												
Vivo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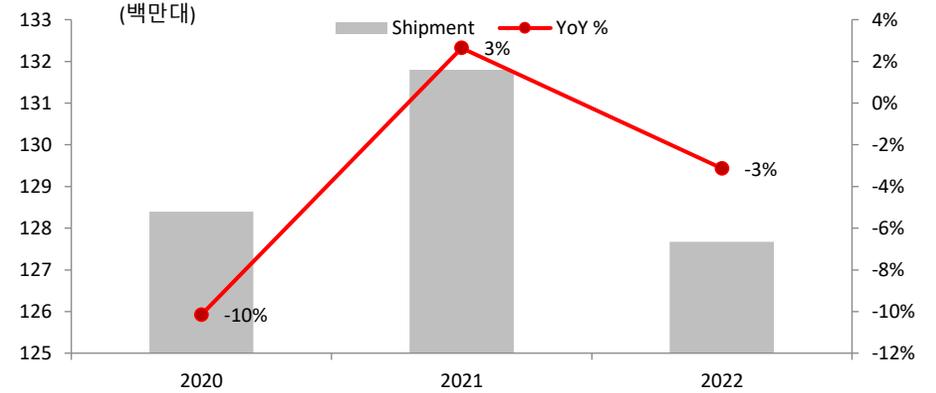
남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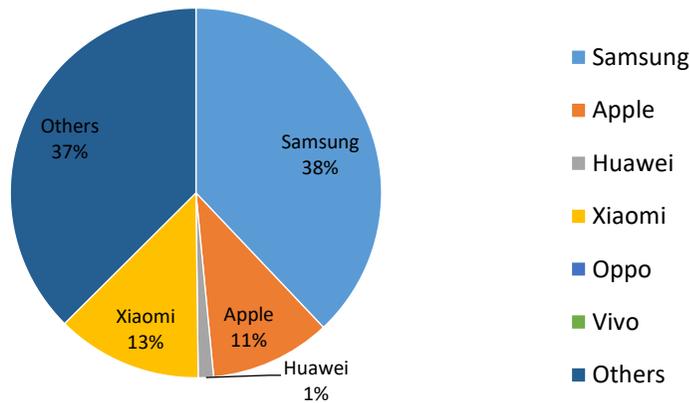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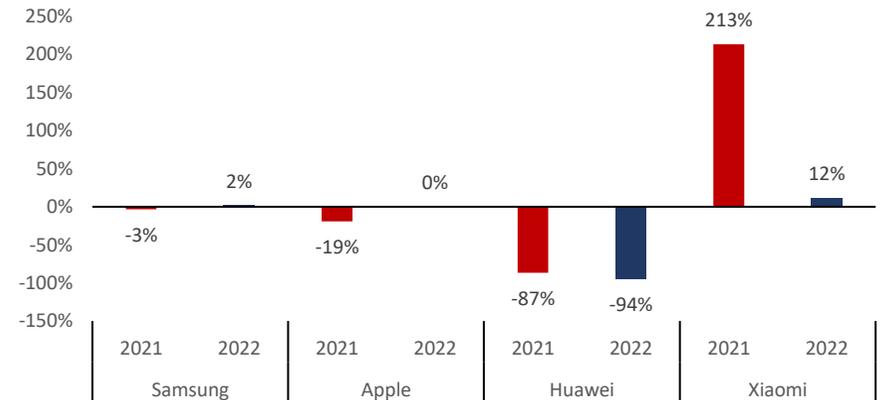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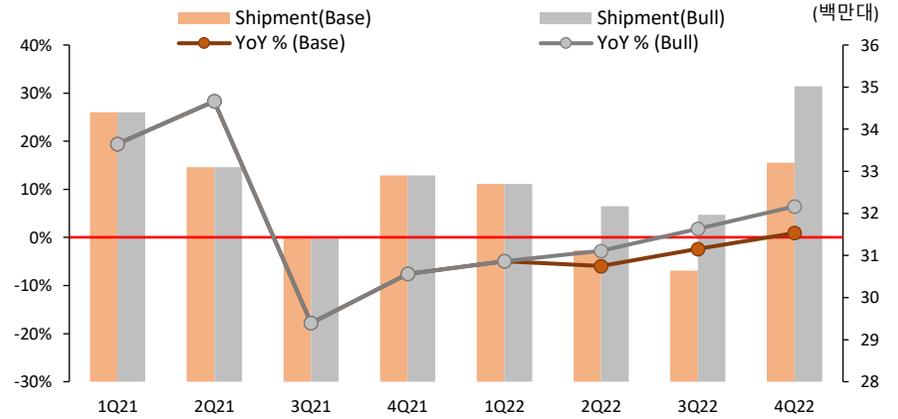
남미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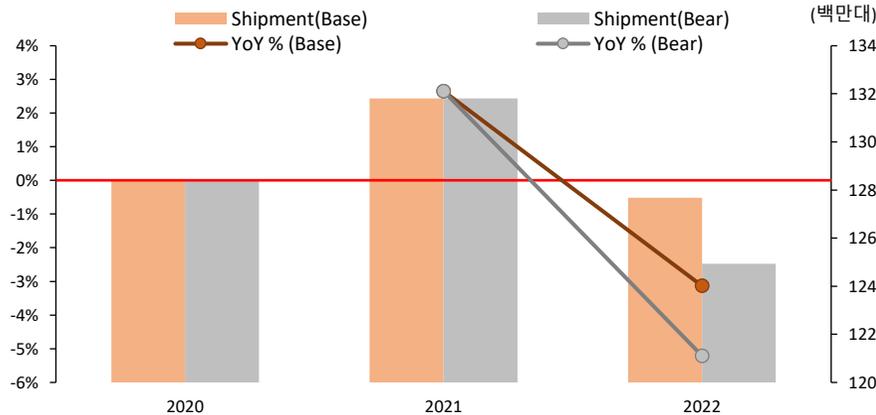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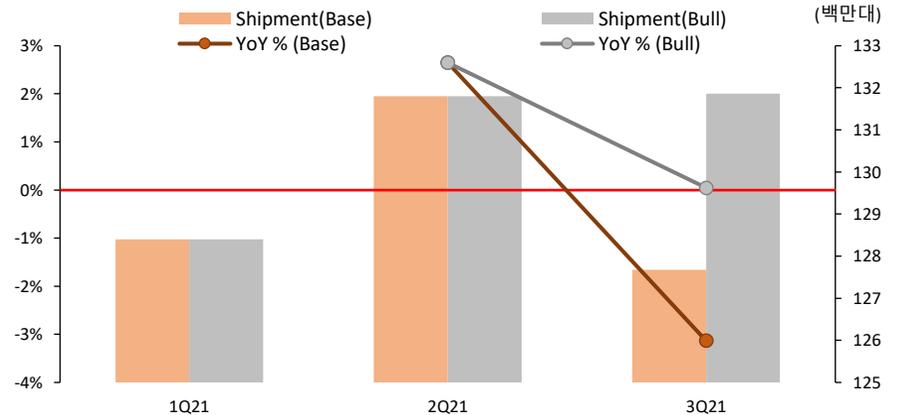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 2021년 출하량: 1.3억대 YoY +6% 기록
- 2022년 출하량: 1.3 ~ 1.4억대 YoY +2 ~ +7% band 추정
- 북미와 더불어 소비 여력이 높은 지역으로 플래그십 제품의 전략적 요충지. 다만 인접 국가의 전쟁 이슈,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소비 심리 위축 우려
- 서유럽 지역 내 점유율 삼성전자 29%, Appl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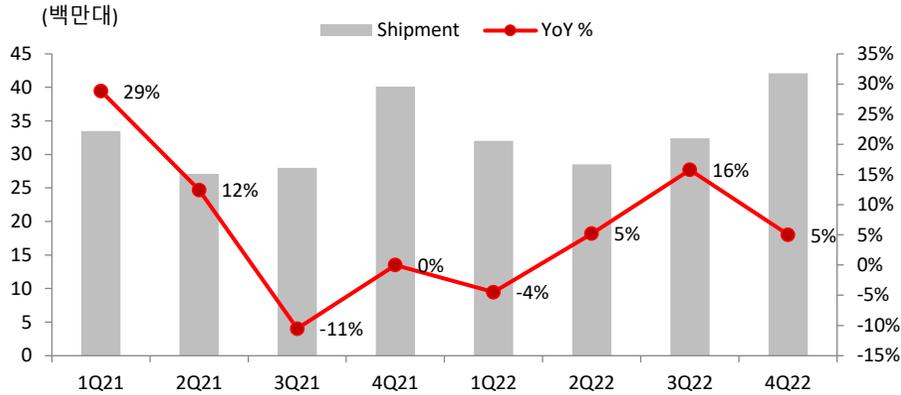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4	27	28	40	32	29	32	42		122	129	135
Bear	34	27	28	40	32	28	31	40		122	129	131
Bull	34	27	28	40	32	29	33	44		122	129	138
YoY %												
Base	29%	12%	-11%	0%	-4%	5%	16%	5%		-9%	6%	5%
Bear	29%	12%	-11%	0%	-4%	2%	11%	0%		-9%	6%	2%
Bull	29%	12%	-11%	0%	-4%	7%	19%	9%		-9%	6%	7%
M/S % in Base												
Samsung	33%	24%	31%	26%	33%	26%	27%	24%		30%	29%	27%
Apple	31%	28%	27%	41%	33%	27%	30%	42%		31%	33%	34%
Huawei	2%	1%	1%	0%	1%	1%	1%	1%		9%	1%	1%
Xiaomi	12%	18%	16%	11%	13%	13%	15%	15%		10%	14%	14%
Oppo	6%	7%	7%	4%	4%	7%	7%	7%		4%	6%	6%
Vivo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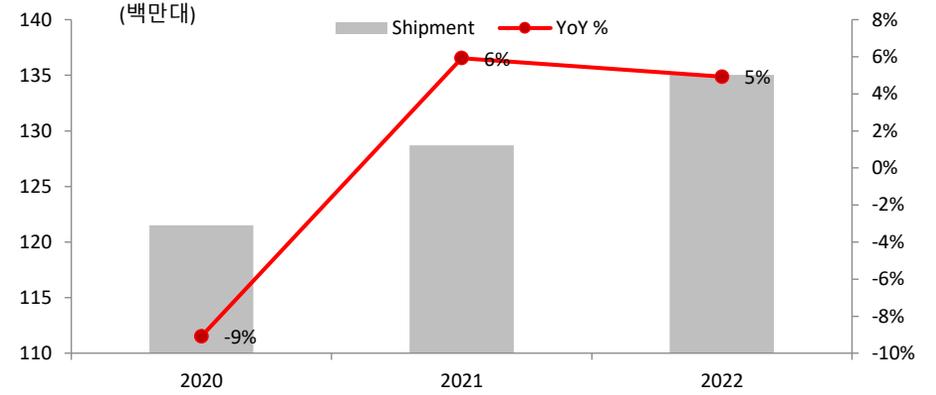
서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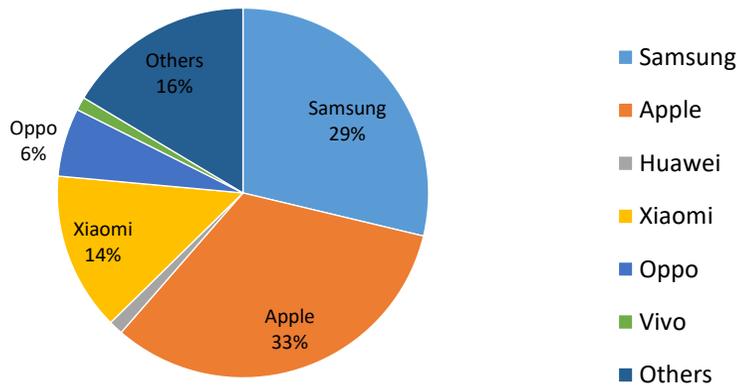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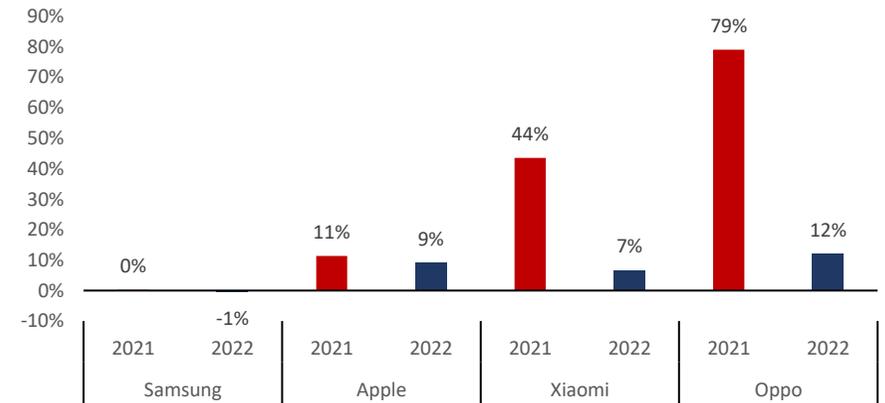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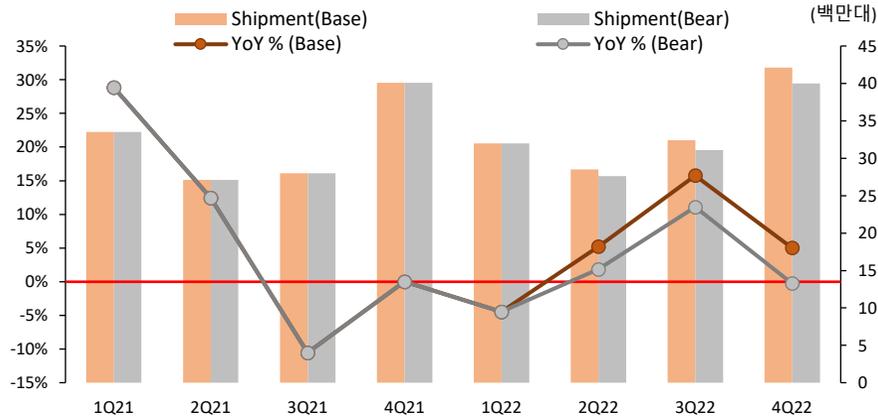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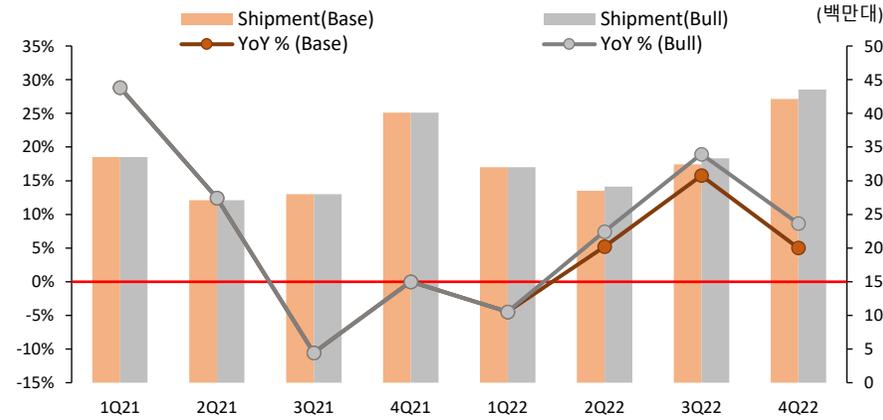
서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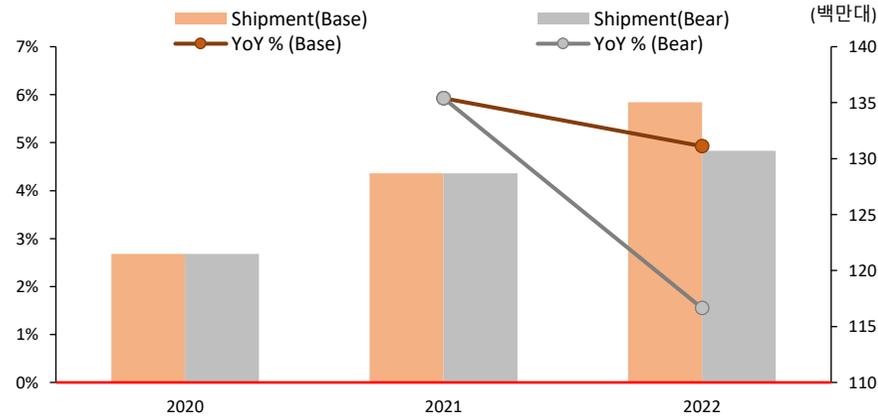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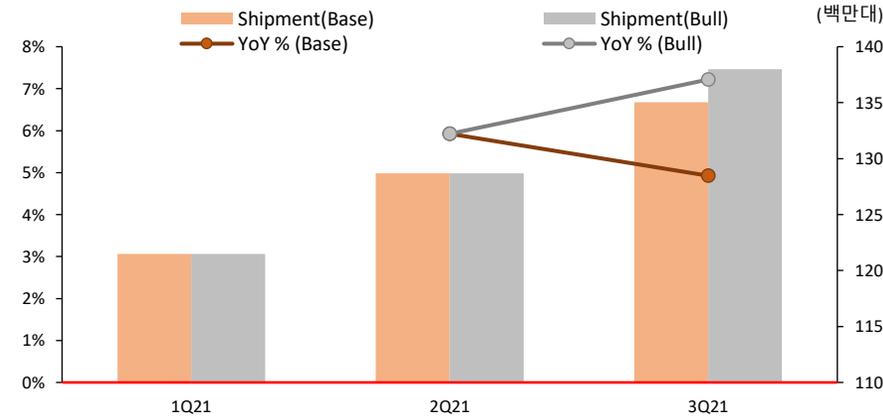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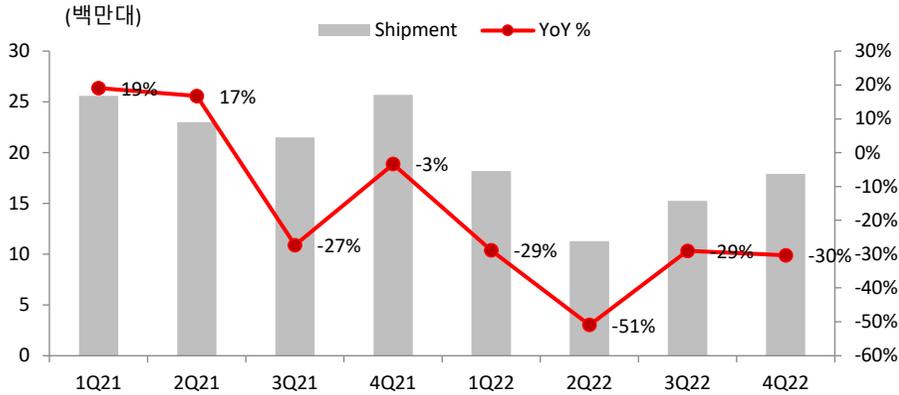
- 2021년 출하량: 96백만대 YoY -2% 기록
- 2022년 출하량: 60 ~ 65백만대 YoY -37 ~ -32% 수준 추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수요 급격한 수요 위축 상황. 올해 스마트폰 수요는 -35% 급감
- 전쟁 종결 이후에도 인프라 부족, 무너진 공급망 체계 등으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동유럽 내에서는 삼성전자, Xiaomi 순으로 높은 점유율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26	23	22	26	18	11	15	18		97	96	63
Bear	26	23	22	26	18	10	14	17		97	96	60
Bull	26	23	22	26	18	12	16	18		97	96	65
YoY %												
Base	19%	17%	-27%	-3%	-29%	-51%	-29%	-30%		2%	-2%	-35%
Bear	19%	17%	-27%	-3%	-29%	-55%	-33%	-32%		2%	-2%	-37%
Bull	19%	17%	-27%	-3%	-29%	-47%	-25%	-28%		2%	-2%	-32%
M/S % in Base												
Samsung	32%	23%	33%	30%	33%	30%	31%	30%		30%	30%	31%
Apple	10%	8%	7%	11%	13%	8%	9%	13%		8%	9%	11%
Huawei	9%	3%	1%	4%	3%	2%	2%	2%		19%	4%	2%
Xiaomi	27%	34%	27%	23%	26%	27%	26%	27%		21%	28%	26%
Oppo	3%	4%	5%	4%	3%	4%	4%	4%		2%	4%	4%
Vivo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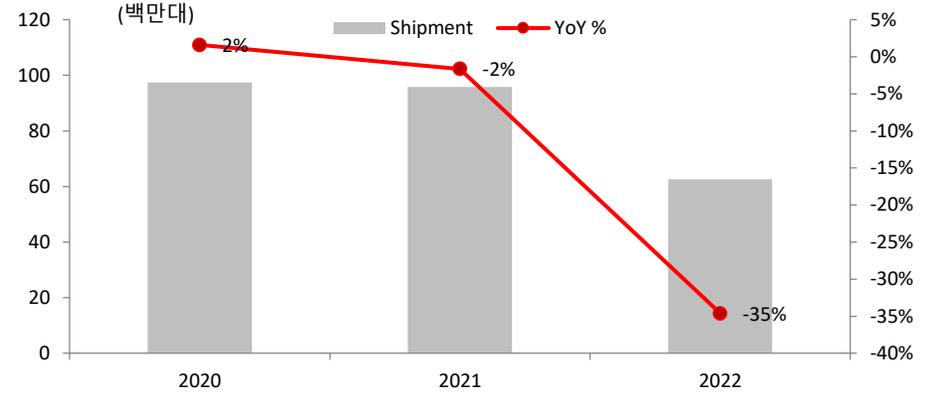
중앙 및 동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s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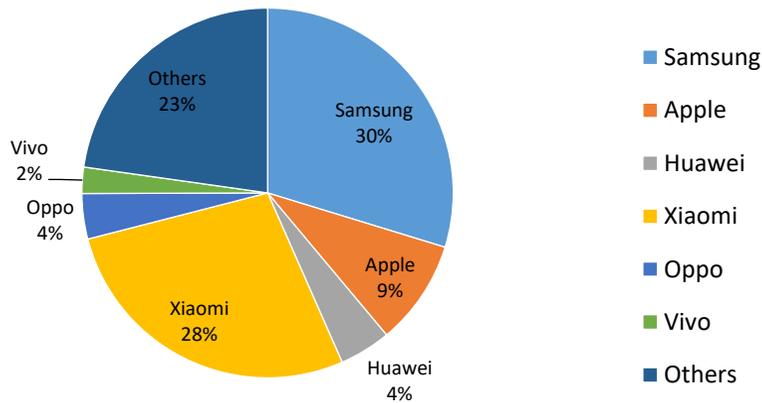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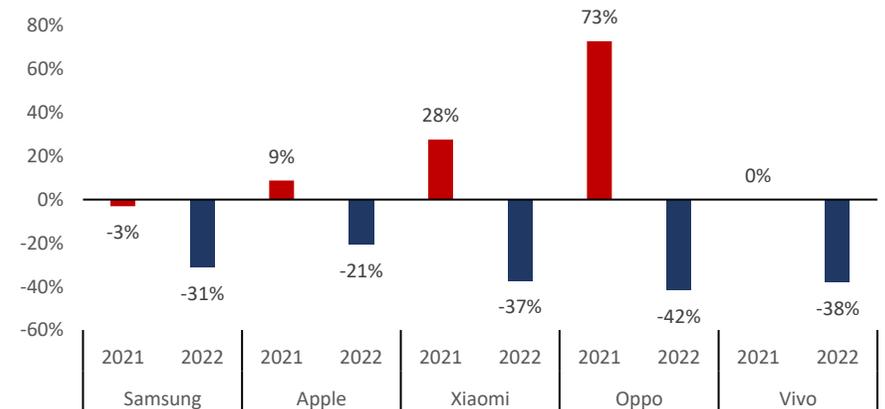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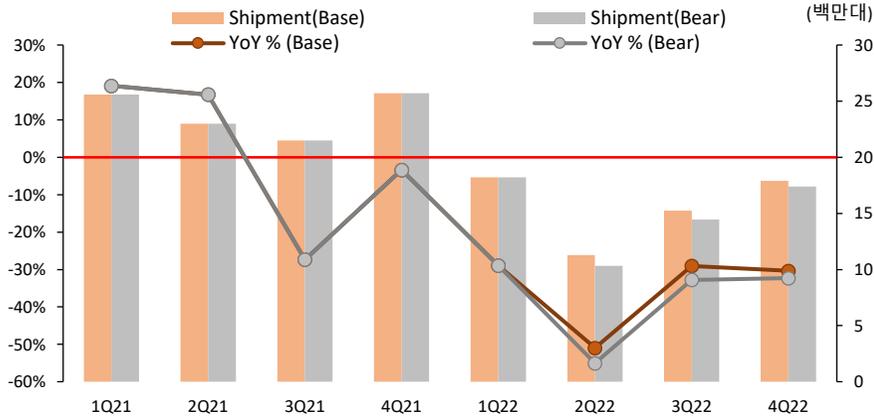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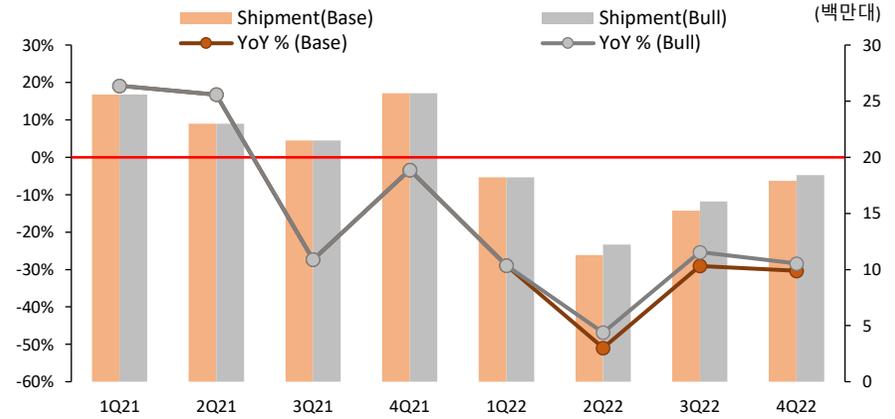
중앙 및 동유럽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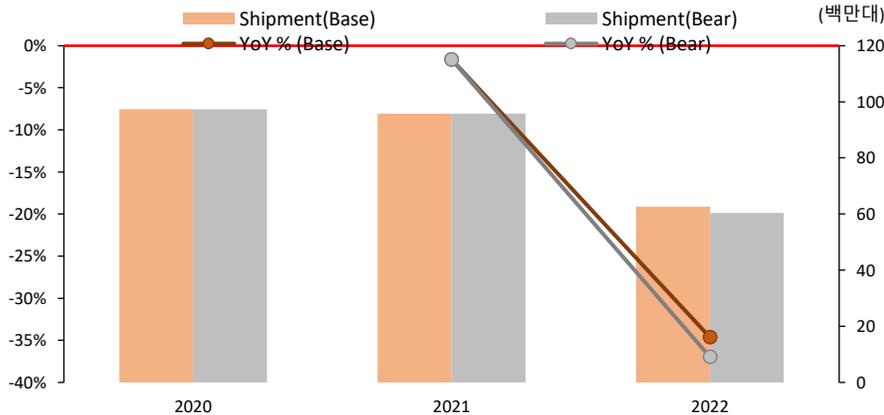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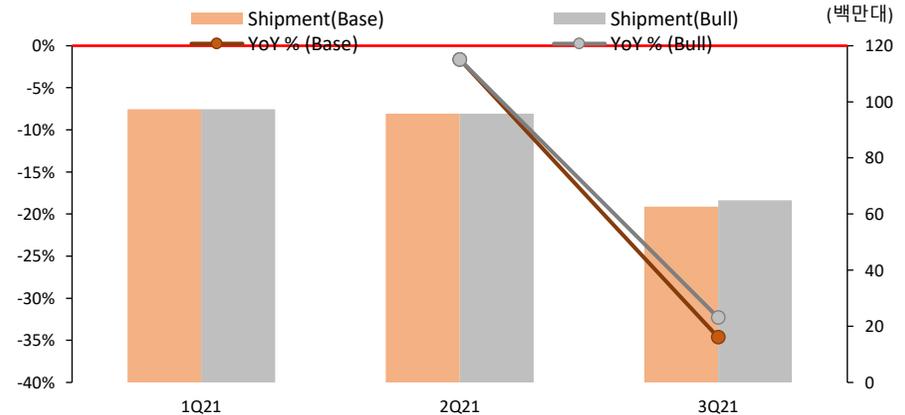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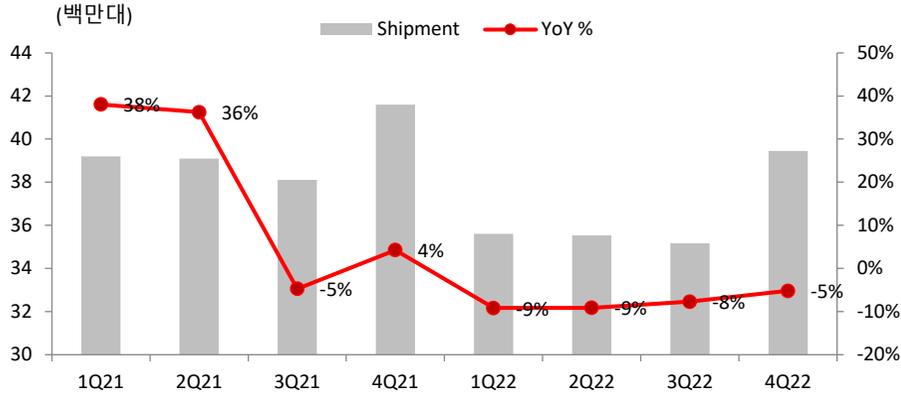
- 2021년 출하량: 1.6억대 YoY +15% 기록
- 2022년 출하량: 1.4 ~ 1.5억대 YoY -10 ~ -5% band 추정
- 여전히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도 이후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서 가능성 확인
-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수요 상당히 불안정
- 삼성전자 점유율 25%로 1위. 3rd tier 업체들로 흩어진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이 향후 과제

시나리오별 출하량 전망 비교												
(in million)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2020	2021	2022
Shipment												
Base	39	39	38	42	36	36	35	39		137	158	146
Bear	39	39	38	42	36	35	34	38		137	158	142
Bull	39	39	38	42	36	37	37	42		137	158	151
YoY %												
Base	38%	36%	-5%	4%	-9%	-9%	-8%	-5%		-4%	15%	-8%
Bear	38%	36%	-5%	4%	-9%	-11%	-10%	-9%		-4%	15%	-10%
Bull	38%	36%	-5%	4%	-9%	-6%	-4%	0%		-4%	15%	-5%
M/S % in Base												
Samsung	28%	23%	26%	23%	32%	26%	27%	27%		25%	25%	28%
Apple	7%	6%	5%	8%	9%	11%	11%	11%		7%	7%	10%
Huawei	3%	1%	1%	1%	1%	0%	0%	0%		11%	1%	0%
Xiaomi	11%	13%	10%	9%	9%	11%	11%	11%		6%	11%	11%
Oppo	5%	7%	7%	6%	5%	7%	7%	7%		4%	6%	7%
Vivo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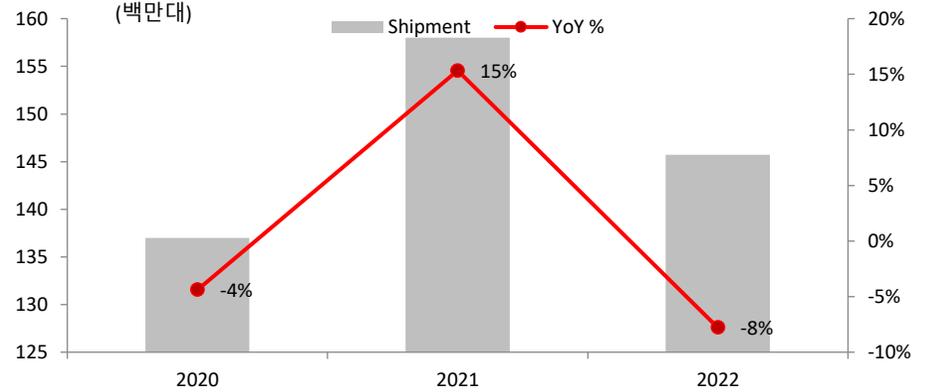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Base Scenario)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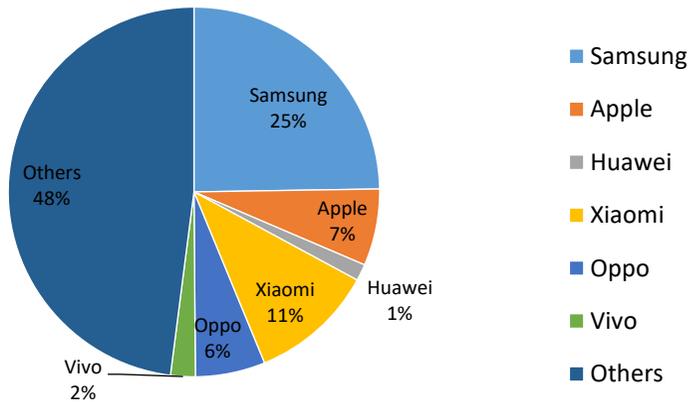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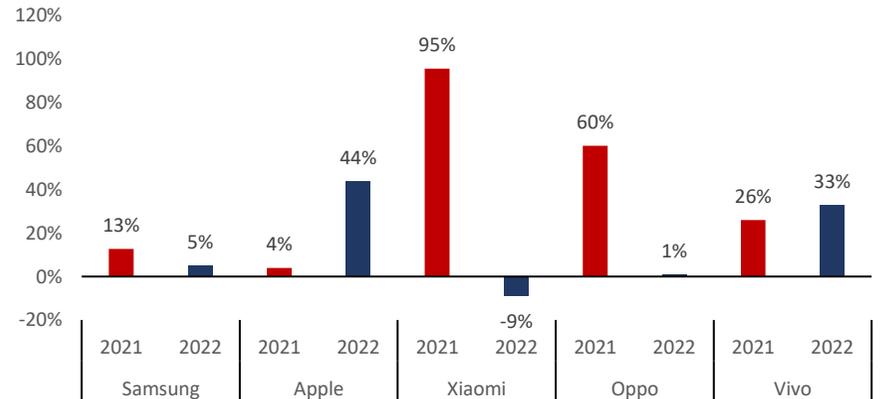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벤더별 M/S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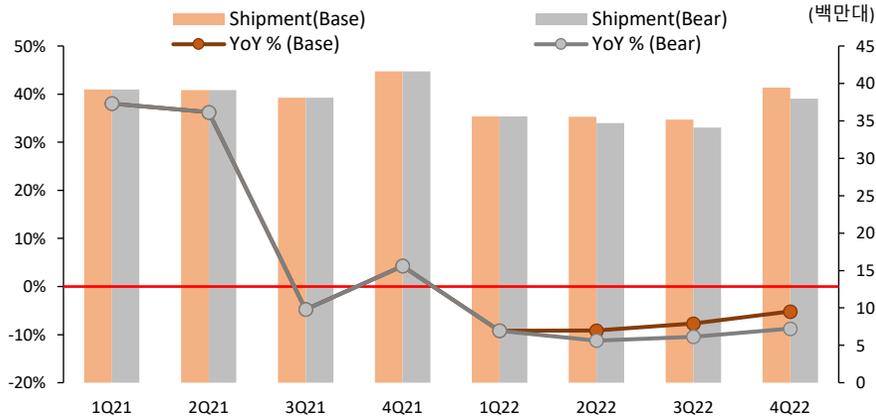
벤더별 연간 출하량 YoY 증감률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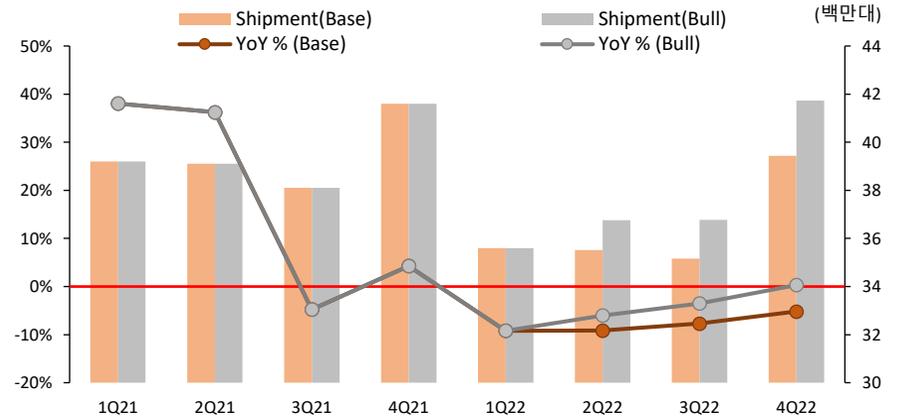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폰 Key Chart (Scenario 비교)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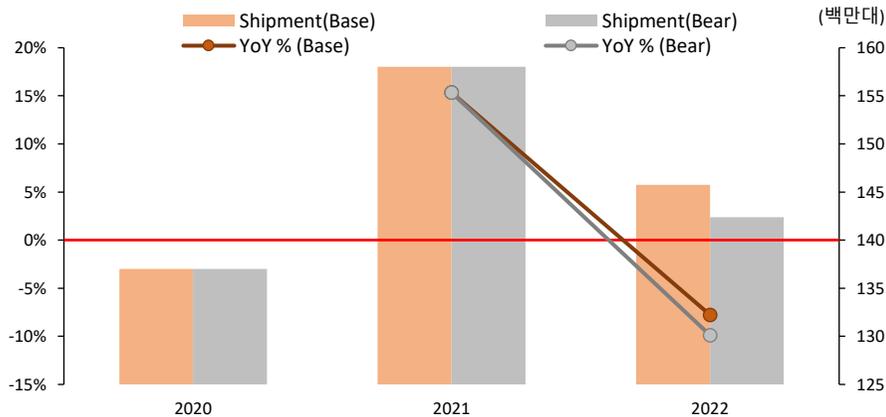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분기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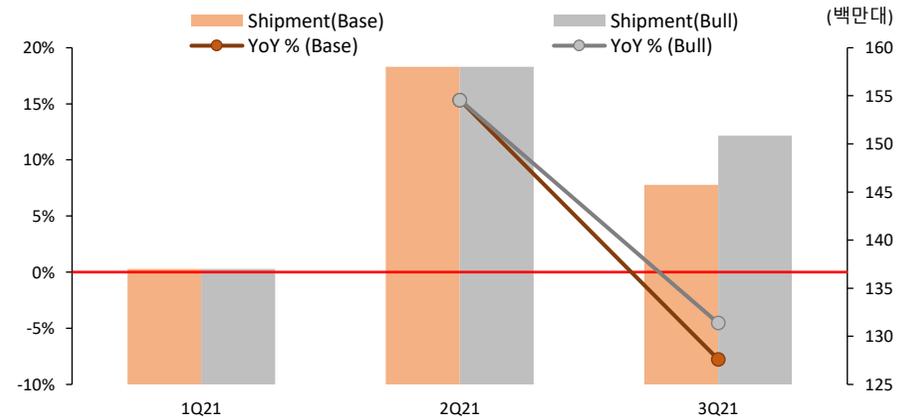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ear)



자료: SK증권

연간 출하량 비교(Base vs Bull)



자료: SK증권